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권정생 동화의 생태주의 세계관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吳 敬 任

2012年 2月

권정생 동화의 생태주의 세계관 연구

指導教授 金東潤

吳敬任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2月

吳敬任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인)

委 員.....(인)

委 員.....(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2年 2月

A Study On The World View Of Ecologism
In Kwon Jung-saeng's Fairy Tales

Oh Gyoung-im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Dong-yun,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1
2. 연구방법과 범위	5
II. 권정생의 생애와 생태주의 세계관	9
III.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주의 세계관의 양상	15
1. 과학만능주의와 전쟁에 대한 비판	15
1) 과학만능주의 폐해	15
2) 전쟁의 폭력성과 고통	23
2. 자연과 소외된 존재에 대한 재인식	29
1)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관계	30
2) 소외된 존재에 대한 애정	36
3. 자기희생을 통한 생명의식 구현	40
1) 자기희생과 모성성	41
2) 생명 존중과 생명 평등	48
IV. 권정생 생태주의 동화의 위상과 의미	54
1. 공존과 상생의 문학	54
2. 분단 극복과 인간성 회복의 문학	59
3. 동심천사주의를 넘어선 문학	62
V. 결론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3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권정생은 한국 현대아동문학사에서 볼 때 획기적인 작가라 할 만하다. 기존 동화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동화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성인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아동문학의 외연을 확장시킨 작가이기 때문이다. 존 로 타운젠드(Jone Rowe Townsend)는 “어린이가 인류의 일부분인 것처럼, 아동문학도 문학의 일부여야 한다. 어린이에게 좋은 책은 그 책 자체로도 좋은 책이어야만 한다”¹⁾면서 어린이 문학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단순히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독자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운젠드의 말처럼 권정생은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포장된 아름다움이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효시는 육당 최남선이 주도한 『소년』(1908)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1923)지를 발간하면서 성인 중심의 일반문학과 구별되는 아동문학 고유의 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권정생 이전까지 아동문학의 작품 경향을 보면, 방정환을 시발점으로 센티멘탈리즘을 표방하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권정생의 작품은 이전에 존재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던 관념이나 사물을 향해 손을 내밀어 생명을 불어 넣으면서, 세상에 존재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철학적 사유까지 아우르게 된다. 그는 식민지 시대와 6·25전쟁, 근대화·산업화라는 미명하에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파괴되고 상처 받은 인간성을 자연과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비평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문학계에서 그의 동화는 다른 작가에 비해 학계와 평단으로부터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중 대부분은 권정생 동화를 기독교적 사상이나 경험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거나, 교육적 의미를 부각시킨 연구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그 자체로서 부분적인 성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권정생 동화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는 미흡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고 접근되고 있는 권정생 동화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의 문학관을 찾고 이를 통해 그의 문학의 본질에 좀 더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된 목적이 된다.

생태문학은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를 성찰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새로

1) 존 로 타운젠드, 강무홍 옮김, 『어린이책의 역사 1』, 시공주니어, 1996, 9면.

은 생태 사회를 꿈꾸는 문학을 뜻한다.²⁾ 결국 ‘나’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생태주의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문학의 본질은 결국 생태주의로 귀결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권정생 동화의 생태주의 세계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동화가 생태주의를 하나의 이론으로 작품에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이론 이전에 경험과 사색의 산물로써 구현하고 있다는 데 있다.

권정생은 기존의 소재나 주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유자재로 리얼리즘 기법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작품을 많이 남기기도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 동화에서 다루기 어려운 가볍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쉽고 명쾌하게 그려나가는 작가로 유명하다. 비평의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는 아동문학에서 그나마 권정생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도 이런 점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권정생이 아동문학사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 보면 그에 대한 연구도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거나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는 편이다. 다만, 원종찬,³⁾ 이오덕,⁴⁾ 이재복,⁵⁾ 김상욱,⁶⁾ 위기철,⁷⁾ 최윤정,⁸⁾ 선안나,⁹⁾ 김서정,¹⁰⁾ 최지훈,¹¹⁾ 오세란,¹²⁾ 이계삼,¹³⁾ 김현숙¹⁴⁾ 등 비평가들에 의해 작가론과 작품론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으며 연구 영역도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정생 동화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오세란¹⁵⁾은 그의 작품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조명한 역사의식이 담겨 있는 작품과 기독교적 사상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은 작품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는 권정생의 관심이 휴머니즘적인, 혹은 자연친화적인 경향을 넘어 생태계적 순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생

2)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96, 29면.

3) 원종찬, 「속죄양 권정생」, 『동화와 어린이』, 창비, 2004.

원종찬, 「낮은 곳에 자리한 고귀한 삶의 철학」, 『아동문학의 이해와 감상』, 겨레아동문학회, 1995.

4) 이오덕, 「난의 역사를 살아온 성스러운 어린이 모습」, 『삶, 문학, 교육』, 종로서적, 1986.

이오덕, 「소박한 삶과 따스한 인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이오덕, 「강아지가 보는 사람 사회」, 『어린이책 이야기』, 한길사, 2002.

5) 이재복, 「시공장도 귀한 영혼이 숨 쉬는 삶의 한 귀퉁이」,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소년한길, 2004.

이재복, 「우화공간과 판타지 공간- 권정생의 「황소아저씨」」, 『판타지 동화 세계』, 사계절, 2001.

이재복, 「참회와 용서의 문학- 권정생의 『뱀데기 죽데기』」, 『판타지 동화의 세계』, 사계절, 2001.

6) 김상욱, 「낮은 곳에서의 흐느낌- 권정생론」,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비, 2002.

김상욱, 「현실주의 동시의 세 가지 양상-권정생 동시론」, 『어린이 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7.

7) 위기철, 「어른문학에도 보기 드문 걸작 몽실언니」, 『창작과 비평』, 부정기간행물 1호, 1985.

8) 최윤정, 「똥 이야기 그림책 세 권」,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 문학과 지성사, 1997.

9) 선안나, 「『몽실언니』의 페미니즘적 분석」, 『천의 얼굴을 가진 아동문학』, 청동거울, 2007.

10) 김서정,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권정생 『몽실언니』」, 『어린이 문학 만세』, 푸른책들, 2003.

11) 최지훈, 「비통한 역사의 서정적 증언」, 『한국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 1991.

최지훈, 「겨레의 한」,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1986, 여름호.

12) 오세란,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관」, 『동화읽는 어른』, 2005년 9월호.

13) 이계삼, 「진리에 가까운 정신」, 『동화읽는 어른』, 2002년 5월호.

14) 김현숙, 「또야는 친구들을 기다린다 -권정생 유년동화론」, 『창비 어린이』, 창비, 2005, 겨울호.

15) 오세란,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관」, 『동화읽는 어른』, 2005년, 9월호.

태계 모두에 대한 존경과 상호 애정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동문학에서는 여전히 자연을 공부해야 하는 하나의 과목으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많다. 발표되는 작품들도 대부분 동물이나 곤충, 식물 등을 의인화하거나 세밀화로 그려 그들의 생태를 설명하는 형식에 그친다. 작품에서 생태문제를 다루더라도 물을 아껴써야 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든가 자연을 사랑하자는 등 교훈적 내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동화에서의 생태주의 세계관은 자칫 운명론적으로 그려지거나 환경문제나 전쟁고발을 다룬 동화 등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아동문학에서 본격적인 생태비평과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정생에 대한 학위논문은 몇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작품을 해석한 논문과 작가의 삶과 문학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 모성성 및 페미니즘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 판타지를 연구한 논문, 소년소설을 연구한 논문, 교육과 관련된 논문 그리고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작품 분석을 위주로 한 학위논문으로는 우선 백영현의 「권정생 동화 연구」¹⁶⁾를 들 수 있다. 권정생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인물, 배경, 주제 등의 특징을 고찰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알려주는 동화로서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논문은 권정생 생전에 쓰여진 최초의 학위논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외 장경혜¹⁷⁾와 황경숙,¹⁸⁾ 정설아¹⁹⁾의 연구를 이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모성성을 고찰한 학위논문으로는 허난희²⁰⁾와 조경아,²¹⁾ 이수연²²⁾의 논문이 있다. 이 중에서 허난희 연구는 그의 아동문학에 나타나는 모성성이 전쟁 혹은 그와 비슷한 위기를 견뎌내게 하고 비극적인 환경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작가의 지향점과 세계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권정생이 남성 작가임에도, 남성의 폭력성과 권위적인 모습을 비판하며, 여성과 어머니들이 역사의 희생양이 되어 온 것에 주목해 그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모성성’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다보니 정작 작품에 나타난 남성의 삶을 살펴보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남성인물들에서 보이는 ‘여성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혜²³⁾는 권정생의 판타지 동화에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판타지의 생명인 상상

16) 백영현, 「권정생 동화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7) 장경혜, 「권정생 단편동화의 문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8) 황경숙, 「권정생 동화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9) 정설아, 「권정생 문학 연구-중 단편 동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0) 허난희, 「권정생 아동문학의 모성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1) 조경아, 「권정생 동화의 페미니즘적 읽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2) 이수연, 「권정생 소설 『한티재 하늘』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3) 김성혜, 「권정생 동화 연구(판타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력도 현실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품의 특징을 아픈 시대상과 그 속에서 개인의 고된 삶을 판타지로 승화시킴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 제시에서 찾는다. 그밖에 권정생 동화를 판타지와 관련시킨 연구로 이주현²⁴⁾, 최남미²⁵⁾ 등이 있다.

류명옥²⁶⁾은 유년시절 극심한 가난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권정생이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종교적 체험을 갖게 됨에 주목하여 전자를 역사적 외적 경험으로, 후자를 개인적 내적 경험의 세계로 구분해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적 고통과 종교성은 ‘낮은 것’의 소중함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실천적 사랑과 희생정신을 갖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금숙²⁷⁾은 권정생의 1980년 이전 초기 동화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을 분석하면서 작품 속에 나타난 사상이 작가의 삶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계삼²⁸⁾의 연구도 이런 경향에 속한다.

작가의 소년소설 연구자로는 최희구²⁹⁾를 들 수 있다. 최희구는 몸으로 직접 체험한 전쟁을 소재로 삼고 사회적 상황과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을 형상화시킨 서술방법을 통해 권정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문학이 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존재 의의를 찾고 있다. 그 외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로는 김상림³⁰⁾과 노연경³¹⁾ 논문 등이 있다.

교육적 가치를 연구한 것으로는 성갑영³²⁾의 「권정생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권정생의 동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화 속에 내재된 교육적 가치를 논의하면서 그의 동화는 민족의 올바른 역사와 참된 현실인식의 눈을 제공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를 강하게 내면화할 뿐 아니라, 예술적 향기로 아동의 미의식을 고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외 교육적 가치를 연구한 것으로 박미옥³³⁾ 논문이 있다.

권정생 동화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한 연구자로는 박수경³⁴⁾이 있다. 박수경은 작가의 삶과 작가의식을 조명하면서 급속한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맞게 된 생태계 위기의 현실에서 문학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정생의 생태학적 상상력이 근원적 세계관의 회복으로 향하고 있는지, 인간이 이루어

24) 이주현, 「권정생의 리얼리즘 동화와 판타지 동화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5) 최남미, 「권정생의 판타지 동화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6) 류명옥, 「권정생 문학에서 경험과 형상화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7) 박금숙, 「권정생 초기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8) 이계삼, 「권정생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29) 최희구, 「권정생 소년소설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0) 김상림, 「권정생 『한티개 하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1) 노연경,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2) 성갑영, 「권정생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3) 박미옥, 「권정생 동화의 리얼리즘 구현 양상과 문학교육적 의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4) 박수경,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높은 문명에 의한 자연파괴의 실상을 고발하고 비판함으로써 우리 삶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있는지, 자연과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바탕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 결과 권정생 동화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사랑에의 지향을 작품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박수경은 기존 연구자들과는 달리 생태학적 측면에서 권정생 동화를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작품 흐름을 분석하기보다는 생태학적 연관성을 띠는 단편적인 표현을 열거하는 데 그치거나, 중단편동화를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다보니 장편동화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참혹성과 생태계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뒤따르지 않아 그 가치와 진정성이 배제된 연구라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권정생 동화의 정신을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정생 동화의 세계는 기독교보다는 노장사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정생은 오히려 작품 곳곳에서 기독교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중심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장사상이나 신과 우주, 자연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이 권정생 동화가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나 생태주의 세계관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권정생 문학 연구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된다. 권정생의 삶 그 자체로서 우리 근대사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고, 철저한 현실인식을 통한 리얼리즘 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거듭나기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권정생 동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화작가에 비해 많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지엽적인 접근과 단편적인 평가에 그쳐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작가가 스스로 산문집이나 대담 등에서 밝혔듯이 상생을 추구하는 생태주의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연구에서 대부분 그것이 간과되고 있음은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해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시발점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권정생은 생태주의 세계관을 작품 속에 녹여내고 승화시킨 작가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그의 동화는 생태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문학의 본질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권정생 작품세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키워드로 생태주의 세계관을 채택한다. 그러나 그의 생태관은 환경오염을 고발하거나 자연파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점을 낮추어 소외 받는 자들의 스스로 희생하는 삶과 그 속에서 생태계의 복원을 꿈꾸며 상생하는 세계를 추구한다. 따라서 권정생 동화에 대한 이해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연을 인간의 욕구충족 수단과 대상으로 전락시킴에 따라 오늘날 생태계 파괴 문제가 초래되었다는 인식하에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모든 생명체를 동일한 가치로 보려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환경운동가이며 생태주의자인 배리 코머너(Barry Commoner)는 생태주의의 원칙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생물은 다른 모든 생물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둘째, 모든 것은 어디론가 자리를 옮길 뿐이며 이 세계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의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그 모습을 바꾸어 생물체 안의 생명 과정에 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것은 다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갈 따름이다. 셋째, 이것은 자연이 좀 더 잘 알고 있다. 즉 현재 생물의 조직 또는 자연생태계의 구조는 엄격하게 선별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조직이나 구조도 현재의 그것보다 더 낫지 않다는 의미에서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다. 넷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³⁵⁾

배리 코머너의 이런 생태주의 원칙은 권정생 동화에도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 권정생 동화는 서양의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기보다 동양의 일원적, 순환적 세계관과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의 이런 세계관은 자신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 권정생은 식민지 시대와 6·25전쟁, 분단의 시대를 가난과 병고로 살면서 자신만이 독특한 문학적 사상을 꽃피운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과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해 인간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꿈꾸는 사상이 작품 속에 녹아 흐른다. 또한 그는 강아지 똥, 생쥐, 감동 바가지, 시궁창에 빠진 똥배, 자반고등어 등 이전에는 동화의 소재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권정생 동화에서의 서사의 구성과 해결의 실마리를 생태주의에 입각해서 밝힘으로써 그의 생태주의 세계관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본적인 방법론으로는 자연생태학적 원리에 대한 심층적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의 틀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작품

35) Barry Commoner, The Closing Circle: Nature, Man, Technology (New-York: Knopf, 1971), pp.41~42;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33면에서 재인용.

세부 분석에 있어서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폄하된 여성적 가치 즉, 감성이나 영성을 통해 여성문제와 환경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려 한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와, 현대의 생태위기상황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보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수반한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지구의 건강에 책임성을 망각한 낭비, 과소비 및 환경오염을 가져왔다고 보는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의 방법론 등을 두루 동원하여 접근할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권정생의 동화는 모두 40편이다. 권정생의 모든 동화를 통독한 후에 생태주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40편으로 추려낸 것이다. 대상 작품을 발표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 품 명	수 록 작 품 집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창작과 비평사, 1977) 무명저고리와 엄마(다리, 1994)
강아지똥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창작과 비평사, 1977), 무명저고리와 엄마(다리, 1994), 먹구렁이 기차(우리교육, 1999), 강아지똥(길벗어린이, 1996)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할매하고 손잡고(올바름, 1990), 무명저고리와 엄마(다리, 1994), 깜둥바가지 아줌마(우리교육, 1998)
장대 끝에서 웃는 아이들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할매하고 손잡고(올바름, 1990), 먹구렁이 기차(우리교육, 1999),
무명저고리와 엄마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창작과 비평사, 1977), 무명저고리와 엄마(다리, 1994)
깜둥바가지 아줌마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깜둥바가지 아줌마(우리교육, 1998)
어시장 이야기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깜둥바가지 아줌마(우리교육, 1998)
먹구렁이 기차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먹구렁이 기차(우리교육, 1999)
토끼나라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깜둥바가지 아줌마(우리교육, 1998)
금복이네 자두나무	강아지똥(세종문화사, 1974),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창작과 비평사, 1977), 할매하고 손잡고(올바름, 1990), 깜둥바가지 아줌마(우리교육, 1998)
보리이삭 쫄 때	사과 나무 발 달님(창작과 비평사, 1998)
들국화 고갯길	사과나무 발 달님(창작과 비평사, 1978)
사과나무 발 달님	사과나무 발 달님(창작과 비평사, 1978),
따리골댁 할머니	사과나무 발 달님(창작과 비평사, 1978),
하느님의 눈물	하느님의 눈물(인간사, 1984), 하느님의 눈물(산하, 1998), 아기소나무(산하, 2010)
아기소나무	하느님의 눈물(인간사, 1984), 아기소나무(산하, 2010) 아기소나무와 권정생 동화나라(웅진주니어, 2000)
가없는 나무	하느님의 눈물(인간사, 1984), 하느님의 눈물(산하, 1998)
아름다운 까마귀 나라	하느님의 눈물(인간사, 1984), 하느님의 눈물(산하, 1998)
고추짱아	하느님의 눈물(인간사, 1984), 아기소나무(산하, 2010)
수몰지구에서 온 아이	하느님의 눈물(인간사, 1984), 산하(1998)
몽실언니	몽실언니(창작과 비평사, 1984)
어느 선달 그믐날	병어리 동찬이(웅진출판, 1985), 짱구네 고추밭 소동(웅진출판, 1991)
새들은 날 수 있었습니다	병어리 동찬이(웅진출판, 1985), 짱구네 고추밭 소동(웅진출판, 1991)
황소아저씨	병어리 동찬이(웅진출판, 1985), 황소아저씨(길벗어린이, 2001)
우리들의 5월	병어리 동찬이(웅진출판, 1985), 짱구네 고추밭 소동(웅진출판, 1991)
눈덮인 고갯길	병어리 동찬이(웅진출판, 1985), 짱구네 고추밭 소동(웅진출판, 1991)
짱구네 고추밭 소동	병어리 동찬이(웅진출판, 1985), 짱구네 고추밭 소동(웅진출판, 1991)

초가집이 있는 마을	초가집이 있는 마을 (분도출판사,1985)
달맞이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	달맞이 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햇빛출판, 1985)
까치 울던 날	달맞이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햇빛출판, 1985),
삼거리 마을 이야기	달맞이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햇빛출판, 1985),
바닷가 아이들	바닷가 아이들(창작과 비평사, 1988)
빼빼기	바닷가 아이들(창작과 비평사, 1988)
곰이와 오픈돌이 아저씨	바닷가 아이들(창작과 비평사, 1988), 곰이와 오픈돌이 아저씨(보리, 2007)
점득이네	점득이네(창작과 비평사, 1990)
웃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	짱구네 고추밭 소동(웅진출판, 1991)
왜가리 식구들의 슬픈 이 이야기	먹구렁이 기차(우리교육, 1999)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 를 입었어요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웅진주니어, 2000)
비나리 달이네 집	비나리 달이네 집(낮은산, 2001)
랑랑별 때때롱	랑랑별 때때롱(보리, 2008)

상기 작품들은 중·단편과 장편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림책 『오소리네 집 꽃밭』의 경우 단편동화와 원고가 동일하나 『강아지똥』이나 『황소아저씨』는 그림책에 맞게 개작되었다. 이 경우 어린이들이 많이 접하는 개작된 그림책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른 작품들은 수록된 동화집이 다를 뿐 동화 원고가 동일하므로 재편집되어 수록된 작품을 텍스트로 삼았다. 권정생 사후에 출판된 장편동화 『랑랑별 때때롱』은 생태주의 관점이 강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관해 논의된 연구성과물이 거의 없는 실정인 바, 이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권정생 동화에서의 생태주의 세계관을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I. 권정생의 생애와 생태주의 세계관

작가들은 이데올로기적 컨텍스트를 공유한다. 역사적으로 같은 기간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작가들도 그렇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특정 문화의 특색에 대해 알면, 텍스트가 쓰여진 시기나 장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환경이 어떻게 텍스트에 영감을 주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림으로써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연관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문학작품이 탄생한 역사적 시기와 문화를 배우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문학작품을 읽으면 그 시기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 문화의 특색에 대해 알면 텍스트가 창작된 시기나 장소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 환경이 어떻게 텍스트에 영감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³⁶⁾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권정생 동화 연구는 단순히 권정생 문학작품의 고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정생 삶이나 시대적 상황이 작가로서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렇게 형성된 사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권정생은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청소부로 일하는 아버지가 가져온 헌 동화책을 보며 글을 깨우치고 책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책은 곰팡내가 나고 반쪽이 찢겨 나가고 불에 타다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세상과 삶을 익혔습니다. 「이솝이야기」, 「그림동화집」,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오가와 미메이의 「빨간 양초와 인어」 미야자와 겐지의 「달밤의 전봇대」 등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은 날 밤에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판자쪽 줄무늬가 어느새 찬비로 변하고 그 찬비를 맞으며 왕자와 인어가 상인에게 팔려가는 구슬픈 모습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따라서 문학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 같은 것은 없으며 결국 저의 주위 환경이 저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든 것 같습니다.³⁷⁾

정장한 전집을 읽는 것과 반쪽이 찢겨 나가고 불에 타다 남은 책을 읽는 것은 그 자세부터가 다르다. 어릴 적 이런 정서들이 권정생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다. 쓰는 글 역시 체험이 바탕이 되는 가난과 그 속에서 나온 성찰을 통해 더 큰 세계로 나가게 하였다.

36) 페리 노들먼, 김서정 옮김,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 시공주니어, 2004, 226면.

37) 김용락, 「충격적인 삶을 사는 동화작가 권정생」, 『나의 스승, 시대의 스승』, 솔과학, 2008, 10면. 이 책은 김용락이 9명의 작가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엮은 것인데 권정생은 그 9명 중 1인이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귀국을 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극심한 가난이었다. 또한 이 때 앓기 시작한 결핵은 그로 하여금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박탈해 버렸다. 우리의 아픈 근대사는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함께 지고 가야할 문제였으나, 권정생에게 닥친 병마는 오롯이 그 혼자만의 짐이었다.

스무 살이 되던 1956년 녹막염과 폐결핵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된다. 안동의 집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가난뿐인 공간이었다. 1964년 겨울에는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개구리라도 잡던 분이였다. 권정생은 시집 『어머니가 사시는 그 나라에는』(지식산업사, 1988)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다각도로 그려내었다.

저 역시 작품을 쓸 때 의식적으로 역사나 사회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머니의 지나온 이야기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즉 어머니가 살아오신 삶이 우리의 역사적 사실하고 맞닿아있는 부분이 바로 저의 문학에서 역사성 사회성으로 드러나겠지요.³⁸⁾

이후 안동군 일직면 조탑동의 마을 교회 문간방에서 지낸 중지기로서의 시절은 그가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한 작가로 새롭게 태어난 시기이기도 했다. 1969년 단편동화 「강아지똥」이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현상모집에 당선되고 이를 계기로 창작에 더욱 몰두한다. 이후 1971년 대구 『매일신문』에 「아기양의 그림자 딸랑이」가 가작으로 입선되고,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무명저고리와 엄마」가 당선된 데 이어, 1973년에는 『강아지똥』을 펴내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한다.

권정생 동화는 그의 경험에서 보듯 기독교 사상에서 출발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상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확장되어 결국 생태주의와 동양의 노장사상을 아우르게 된다.

흔히 동화에다 무리한 설교조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 동화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유익한지 알 수 없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은 혼시나 설교가 아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속의 인간보다 잘 보존된 자연 속의 인간이 훨씬 인간답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권의 도덕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푸른 하늘과 별과 그리고 나무와 숲과 들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 아니다. 한 포기 나무와 꽃과 풀도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고 있다.³⁹⁾

권정생은 한 권의 책을 읽기보다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한다

38) 위의 책, 13면.

39) 권정생 글 모음집, 이철지 엮음, 『오물덩이처럼 똥굴면서』, 종로서적, 1996, 156면.

다. 자연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삶 또한 윤택해진다 는 것이다. 권정생의 생태주의 세계관이 잘 나타난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⁴⁰⁾에서도 풍요로운 삶이란 어린 새 한 마리까지 함께 이웃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더럽고 부끄러운 삶이라며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의 삶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말한다.

권정생은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작가이다. 이런 현대사를 살아온 권정생에게 청소년기에 찾아든 결핵이라는 병마가 더해지면서 그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 놓여진다.

“나는 왜 동화를 쓰게 되었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언제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누구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들려주고 싶듯이 그렇게 동화를 썼는지도 모른다.”⁴¹⁾는 말처럼 권정생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동화로 써내려간 작가이다. 문학의 기본 속성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서사 문학은 바로 사람의 이야기이다. “사람의 삶과 결부되지 않은 이야기는 없다. 동화와 소년소설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인간의 갈등과 결부되지 않은 이야기란 상상할 수가 없다.”⁴²⁾ 권정생에게 있어서 동화는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곧 자신의 이야기이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난한 자 곁에서 함께 가난해지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만약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주택에 살며 고급승용차에 경호원을 데리고 나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몇 백만 원씩 나눠주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능수능란한 부흥사도 아니고, 자선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 가장 소박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서 33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해준 삶 때문인 것이다. 이 세상에 위대한 성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해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짧은 목숨인데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들만 유독 이 지구상에 암처럼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지구멸망은 인간들의 욕심이 빚어 낸 결과이지 결코 천재지변은 아니었다.⁴³⁾

그는 가난과 병마 속에서 한없이 낮은 곳에 자리하면서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이 그러하듯이 끊임없는 각성과 성찰로 새롭게 태어난다. 삶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면서 흡사 등신불을 연상시킨다. 웃는 부처가 아니라 고뇌하는 부처, 권정생의 문학은 여기서 발현된다. 슬픈 이에게는 슬픈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권정생의 아픔은 한없이 확장되어 민족의 슬픔을 보게 되며, 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방법까지도

40)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2008.

41) 위의 책, 156면.

42) 최지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168면.

43)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앞의 책, 32면.

제시하고 있다. 그 치유는 자연 속에서의 치유이다. 자연을 어머니라 할 때 권정생은 모성성에서 그 치유의 길을 찾고 있다.

생태(生態)란 ‘본래 그러한 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지구는 더 이상의 개발을 견딜 수 없는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살 만한데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여전히 파헤치고만 있다. 사람은 다른 생물종에 대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경우가 드물지만 실제 동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독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권정생은 이러한 점을 책에서 배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병고의 몸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몸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권정생이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았다면 그의 생태주의 세계관은 체득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서향으로 지어진 예배당 부속 건물의 토담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다. 외풍이 심해 겨울엔 귀에 동상이 걸렸다가 봄이 되면 낫곤 했다. 그래도 그 조그만 방은 글을 쓸 수 있고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창호지문에 빗발이 쳐서 구멍이 뚫리고 개구리들이 그 구멍으로 뛰어 들어와 짹짹 울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 생쥐들이 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 잤다. 자다 보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옷 속으로 비집고 겨드랑이까지 파고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 몇 번은 놀라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지내다 보니 그것들과 정이 들어버려 아예 발치에다 먹을 것을 놓아두고 기다렸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굼벵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황금덩이보다 강아지똥이 더 귀한 것을 알았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⁴⁴⁾

권정생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함께하다 보니 인간이나 강아지똥이나 하나 다를 게 없고, 쥐도 귀여운 존재이며, 메뚜기나 굼벵이도 슬픔과 고통을 겪는 존재라는 생각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이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웃기는 말이고, 정말 위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⁴⁵⁾는 것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가난하고 못난 것들과 늘 공존하고 상생하는 삶이 그려지는 게 우연이랄 수 없는 이유이다.

그의 이러한 생태주의 세계관은 전통적 세계관과도 맞물려 있다.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인간 자신도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순환 고리일 뿐, 죽음 또한 순환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의 모든 것이 인간의 삶과 관련 있다는 인식은 오래전 농촌이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 되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조화된 삶이 이루어 질 때의

44)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앞의 책, 20면.

45) 김용락, 앞의 책, 319면.

기억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때 인간중심의 사고나 인간 우월적 태도는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는 『강아지똥』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권정생의 다음과 같은 대답에 잘 나타나 있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자연이 살아있었거든. 길가에 개똥도 많았고, 어느 날 개똥 옆에 보니 민들레가 피어있더라. 가만히 보니 개똥이 영양분이 된 거잖아. 개똥도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라는 생각도 들고 당시 내 처지를 생각해보기도 하고 ……⁴⁶⁾

권정생은 1983년 교회 문간방을 떠나 빌배산 아래 빌뱅이 언덕에 집을 마련하였다. 『몽실언니』 인세 60만 원과 동네청년들의 자원봉사로 지은 5평 남짓한 흙집에서의 생활은 권정생에게 작가로서 평온과 안정을 갖다 주었지만, 심해지는 병고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하느님께 올리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저는 올해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빌배산이라는 얇으막한 산 밑에 공지가 있어 구 칸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무척 따뜻합니다. 언덕배기이고 그리고 풀밭 가운데이기 때문에, 집 둘레에 여름내 가으내 꽃들이 피었습니다.⁴⁷⁾

그것은 수행자의 삶이었다. 무소유와 무욕을 실천한 작가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성한 사람이라고 우쭐대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권정생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 주었던 이오덕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땀땀함만 지녔다면 병인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복을 입지 못해도 장가를 가지 못해도 친구가 없어도 세 끼 보리밥만 먹고 살아도 나는 종달새처럼 노래하겠습니다.⁴⁸⁾

2007년 5월 권정생은 향년 70세의 일기로 거름과 같은 삶을 마감한다. 1969년 「강아지똥」 이후, 단편 및 중편 동화 120여 편, 장편동화 5편, 장편소년소설 3편, 장편소설 2권, 시집 1권, 위인전기 1권, 산문집 1권 등 24권의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남김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에 확고한 족적을 남겼으나, 그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풍요로운 삶이라기보다 간신히 겨우 사는 것에 더 큰 의미와 기쁨을 이어간 시간들이었다. 다만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늘 자연과 모든 생명의 고귀함을 이야기하고 이웃과

46) 위의 책, 30면.

47) 이철지 엮음, 『권정생 이야기 1』, 한결음, 2002, 40면.

48) 이원준, 『권정생』, 작은 씨앗, 2008, 125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전쟁과 배고픔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기도하던 삶이었다.

요컨대 권정생의 삶은 민족사의 아픔에 개인적인 병고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극심한 가난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이별, 그리고 병마로 권정생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한없이 낮은 곳에 있는 주인공들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로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⁴⁹⁾고 스스로 말했듯이 권정생의 동화는 슬프지만, 절망은 없다. 그의 삶이 그렇듯이 슬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절제된 감정이나 극복되어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감정의 생태 즉 ‘본래 그러한 대로’ 슬픈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고통과 슬픔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49) 이철지 엮음, 『권정생 이야기 1』, 앞의 책, 22면.

Ⅲ.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주의 세계관의 양상

1. 과학만능주의와 전쟁에 대한 비판

생태학적 인식은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 그리고 존재 양식 자체를 새롭게 바꿀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현실 인식,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학적 인식을 흔히 제2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한다.⁵⁰⁾

인간은 생태계 속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복잡하게 얽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근대 이전 인간은 자연을 경외시했고, 인간이란 오직 자연 속의 인간으로 생각했다. 근대 이후 인간중심사고가 지배하면서부터 자연은 다만 인간의 정복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인간을 위한 일이면 뭐든 정의가 되는 인간중심적 사고는 생태계를 급속히 파괴시켰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그것이 가져다 준 편리함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소비와 그 소비를 충족시킬 상품 개발, 대량생산을 불러오고 자연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댐건설이나 벌목, 채굴이나 매립 등은 그곳에 존재하는 생태계 파괴를 몰고 왔으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많은 문제들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권정생은 이런 사태를 안타까워하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다. 권정생의 동화는 과학만능주의와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지구 전체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며 그런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1) 과학만능주의 폐해

물질에 지배를 받게 된 우리의 정신은 그 어떤 것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고 나와 너를 편 갈라 인간의 이기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번 상실된 인간성은 우리사회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 권정생의 동화 『랑랑별 때때롱』⁵¹⁾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50) 김용민, 『생태문학』, 책세상, 2003, 20면.

51) 권정생, 『랑랑별 때때롱』, 보리, 2008. 이하 작품 인용시에는 ()안에 작품 면수만 표시함.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복제동물은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세상에 엄마 아빠가 없는 동물을 왜 만들까요? 태어나면서 고아로 외롭게 자라야 하는 동물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사람도 복제 하려는 과학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생겼든 못 생겼든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수십억 년 동안 저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애써서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명의 질서를 깨뜨린다면 앞으로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4~5면)

지구에 사는 새달이와 마달이는 량랑별에 살고 있는 때때롱과 매매롱의 초대로 량랑별에 가게 된다. 량랑별은 우리 사회의 1960~70년대를 연상케 한다. 마을 어귀에 버스가 서는 장면이라든가,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모습, 호롱불을 켜 놓고 밥을 먹는 등 량랑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소박한 시골과 비슷하다. 때때롱 할머니와 함께 모두 투명한 도깨비 옷을 입고 량랑별에서 500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은 지금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가려는 미래이다. 꿈의 세계이다. 그런데 편해질 거라고 생각한 과학문명의 세계는 끔찍함 그 자체로 자리하고 있다. 지금의 량랑별이 되기 위해서 량랑별 사람들은 500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말이다.

“5백년 뒤에서 온 너도 알지 않니? 우린 좋은 유전자만 골라다가 맞춰서 만든 맞춤형인간이야.”(147면)

“보탈이는 왜 나가 놀지 않고 혼자서 그러고 있니?”

“늘 그래요, 놀 줄을 몰라요.”

때때롱네 엄마랑 아빠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다 그래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놀 줄 몰라요.”

“왜 그러니? 이상하구나?”

“그렇게 만들었대요. 키 크고 잘 생기고 머리 좋고 얌전하고 그런 사람만 만들었대요.”

“그래도 놀 줄은 알 게 아니니?”

“노는 게 뭐예요?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몰라요.”(167면)

어린이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갖는 모든 희망사항을 이 별에서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과학이 주는 맞춤형자식으로 갖게 된다. 열 살이면 모든 것을 알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지식을 습득할 때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물론, 실패했을 때의 쓰라림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는 아이가 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없는 삭막한 세상이다.

있는 하나도 없고 열매만 주렁주렁 달린 토마토 밭도 있고, 오이, 시금치, 포도, 딸기, 바나나, 그밖에도 갖가지 이름도 모르는 채소와 과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

보탈이 포도랑 바나나랑 한 바구니 따다가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다투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꿀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보탈은 다시 넓은 목장으로 갔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들이 떼를 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지어 놓은 축사에는 닭들이 있고, 돼지들이 로봇 일꾼들 손에 잘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굉장했습니다. 모두가 풍족하고 편리한 세상이었습니다.

(……)

보탈은 또다시 자동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나무가 자라고, 꽃밭이 너무도 예쁘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알맞은 풀밭 길과 군데군데 놓인 긴 의자와 아름다운 조각상, 무지갯빛 분수대, 거기다 손이 닿는 데마다 갖가지 음료수를 준비해 놓은 찻집들이 모두 공짜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쉬기도 하고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무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고 걷는 사람도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래요. 할 일이 없어 놀고 있어요. 웃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요.”

“왜, 왜 그러니?”

새달이가 얼른 물었습니다.

“몰라, 본래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너무 편해서 그리 됐는지 나도 몰라.”(174면)

과학으로 인해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말을 할 필요도, 웃을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모르듯, 어른들도 일을 하고 난후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기도 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랑랑별 때때롱』에 나오는 500년 전 아이들은 맞춤 인간으로 열 살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농장에서는 로봇들이 풍성한 과일을 만들어 내고 축사에서는 로봇들이 닭이며 돼지를 키워 낸다.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에서는 맛있는 음료들이 무료로 준비하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꿈의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과학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데도 랑랑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살기 위해 힘겹게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랑랑별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웃을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다. 화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랑랑별 사람들은 웃음도 모르고 울음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이야기도 모른다. 먹고

마시고 앉아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 보내는 것이다.

검소함과 절약은 작가의 삶 자체이기도 했지만 작품 곳곳에서 투영된다.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⁵²⁾는 환경을 위해 기운 바지를 입는 아기 너구리 또야의 입을 빌려 작은 실천적 철학을 이야기한다. 기운 바지를 입은 또야는 내년에는 꽃들이 더 예쁘게 피고 시냇물을 더 맑게 흐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야는 유치원 갈 때 기운 바지는 거지 같다며 입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기운 바지를 입어야 자연이 더 잘 산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기운 바지를 입는다. 유치원 가는 길에 또야는 은행나무를 만난다.

“은행나무야, 넌 올해는 더 예쁜 잎이 가득 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운 바지를 입었거든.”

아기 너구리 또야는 엄마가 기워준 바지 엉덩이를 허리를 구부리며 보여줬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단다. 궁둥이 기운 바지를 입으면 산에 들에 나무들이 더 예쁘게 꽃이 핀다고.” (……)

그러고는 동동 뛰어갔어요. 가다가 시냇물 다리를 건넜어요. 또야는 또 멈춰 섰어요.

“시냇물야. 이것 봐, 내가 기운 바지를 입었으니 고기들이 아주 많이 살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셨단다. 알았지.”(16~18면)

처음에 또야는 기운 바지를 입으면 왜 꽃이 더 예쁘게 피고 고기들이 많이 사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나무와 시냇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고 결국 유치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의 엉덩이를 보여주게 된다. 또야 친구들이 자기들도 내일부터 기운 바지를 입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검소함과 절약의 미덕을 그리면서 권정생은 이런 작은 실천적 철학만이 자연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환경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왜가리 식구들의 슬픈 이야기」⁵³⁾가 있다. 환경문제를 노골적으로 고발한 이 작품은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일은 요원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눈앞의 경제논리에 눈을 감아버리는 우리 현실을 비판한다.

왜가리 부부는 결혼을 하고 알 세 개를 낳는다. 왜가리 부부의 정성으로 알은 부화되고 다른 새들처럼 부지런히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새끼들을 먹인다. 어느 날 논에 농약이 뿌려진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왜가리 부부는 미꾸라지를 잡아 새끼에게 먹이

52) 권정생,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우리교육, 2000.

53) 권정생, 「왜가리 식구들의 슬픈 이야기」, 『떡구렁이 기차』, 우리교육, 2002.

게 되고 그것을 먹은 새끼들은 모두 죽어버린다. 이어 왜가리 아주머니도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농약은 인간이 더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뿌리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체의 존재 여부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다.

작가는 초가집도 없어지고 마을길도 넓혀지면서 근대화란 것이 참으로 편한 것 같지만, 과연 그런 편안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고 무엇을 잃게 했는가를 묻는다. 「웃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⁵⁴⁾는 소달구지와 경운기를 통해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

웃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는 건넛산 비탈밭 한 뼨기로는 먹고 살아갈 수 없어, 장날마다 달구지를 몰고 마을 사람들의 장짐을 실어 날라주고 샅을 받는다. 달구지는 아들이 탄광에서 죽자 받게 된 얼마의 보상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웃들 마을 안쪽 큰 기와집에서 경운기를 사들인다. 아직 신품이어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경운기엔 소달구지보다 갑절이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게다가 사람까지 가장자리에 태울 수 있다.

“송서방 경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호강하는구먼.”

“이러면 사람 뭇으로 샅을 내야 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운 듯이 떠들어 대었습니다. 큰 기와집 아들 송 서방은 껄껄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람은 공짜로 태워다 드릴 테니까요.”

웃고 떠들며 부산을 떨더니, 경운기는 사람들을 태운 뒤, 거기에 감나무 집 할아버지를 혼자 남겨 놓고 훌쩍 떠나 버렸습니다. 시끄러운 경운기 소리는 흡사 할아버지와 소달구지를 비웃는 소리 같기만 했습니다. (23면)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은 경운기가 나타나자 환호한다. 과학을 보며 환호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편리함과 속도 때문이다. 소달구지는 빠르게 잊혀지고, 그와 함께 천천히 하늘을 보고 가며 이웃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정도 없어져 간다.

초가집을 헐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갈고 그 다음엔 벽돌 양옥집으로 바꿔 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이라 했던 모든 문명이야말로 파괴의 원인이며 인류의 멸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인간이 문명의 혜택으로 편리와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수많은 동식물이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선진산업국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약소국가와 약소민족은 헐벗고 굶주려야 했습니다.⁵⁵⁾

54) 권정생, 「웃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 2005.

55) 권정생, 『하느님의 눈물』, 앞의 책, 77면.

이처럼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거침없이 우리가 지닌 것들을 버리라 한다. 조금 있으면 경운기도 트럭이라는 더 빠른 운송수단 앞에 자리를 내어 줄 것이라는 점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인간이 죽음을 부정하고,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모든 재앙과 비극이 시작 되었음”⁵⁶⁾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금복이네 자두나무」⁵⁷⁾는 인간성 상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은 최주사가 선심 쓰듯 금복이네에게 자두나무 밭을 팔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최주사의 말을 빌리면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다. 오랫동안 문간방에서 살아온 인정을 생각해서 자기 밭을 사라고 선심을 썼다는 것이다. 금복이네는 한없이 고마워한다. 그동안 고용살이를 한 보람이 있었다고 기뻐한다. 금복이네는 성철이네가 준 자두나무 두 그루를 심고 정성껏 가꾼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성철이네 아버지와 금복이네 아버지가 자두나무 두 그루를 캐내었습니다. 너무 큰 나무이기 때문에 옮겨심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캐내는 데 무척 조심해야만 되었습니다. 팽이 끝으로 흙을 살살 긁아내어 실뿌리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캐낸 나무는 달구지에다 싣고 밭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69~70면)

금복이네가 자두나무를 옮길 때 이웃도 함께 한다. 실뿌리까지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자두나무를 옮겨 심는다. 나무 하나를 옮겨 심는데도 모두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만큼 힘을 보탠다. 이웃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용담 마을 앞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뚫는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더욱이 최주사네 너른 밭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금복이네 자두나무밭이 새 길을 뚫는데 몽땅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복이는 자두나무를 찾아가 보고 물을 길어다 주고 북을 두우면서 자두나무가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불도저는 자두나무가 심긴 밭둑을 망가뜨리고 금복이네 자두나무도 말끔 쓸어버린다. 물질적 이익 앞에서 양심이나 배려는 전혀 없다. 최주사의 절대적 가치는 ‘물질’뿐이다.

1962년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⁵⁸⁾이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더 이상 현대인의 삶을 풍요롭게만 해 주는 게 아님을 자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 환경오염과 생존에 위협을 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권정생도 이런 문제를 적극

56) 김종철, 「뿌리내리기」,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녹색평론사, 2008, 257면.

57) 권정생, 「금복이네 자두나무」, 『뚝배기 보고 온 달나라』, 창비, 2006.

58) 레이첼 카슨, 이태희 옮김, 『침묵의 봄』, 참나무, 1991.

포착하였다.

「수몰지구에서 온 아이」⁵⁹⁾는 개발로 인해 정든 고향과 친구들과 헤어져 낯선 동네로 이사 온 동수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동네 아이들은 친구가 새로 와 좋아했으나 동수는 도통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댐 건설로 집을 잃은 동수가 “우리 집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을 거구요.”(210면)라며 눈물짓는 대목에선, 과연 개발이란 무엇인가,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장대 끝에서 웃는 아이」⁶⁰⁾는 어린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아는 서커스단 어른들을 통해 물질만능주의를 고발하고 있다. 고향도 모르고 엄마·아빠도 모르는 난이는 서커스단에서 똥보아줌마 어깨 위에 놓인 장대 위에서 묘기를 부린다.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이는 똥보아줌마도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아닌 장대이다.

난이가 재주를 부리는 날은, 온종일 장대 몸에서 식은 땀이 줄줄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이야, 어째서 이렇게 위태한 짓을 해야만 되니?”

장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물었습니다. 난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른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어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시키니?”

“웃으려고.”

“웃으려고?”

“그래, 어른들은 웃고 사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라 한단다.”

“어머나! 난이야, 그건 틀린 생각이야. 난이 같은 어린애를 이런 높은 장대 끝에 올려놓고 웃는다는 건 나무나 풀들은 생각조차 못할 거야. 호랑이나 늑대 같은 짐승들도 자기네들의 새끼를 이렇게 위태로운 곳에 얹어놓고 좋아라 웃지는 않는단다.”

장대는 서럽다 못해 분하기까지 했습니다.(102면)

그런 난이는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서커스단에서 달아난다. 하지만 난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 난이는 붙잡혀서 까무러칠 정도로 심하게 맞는다. 쓸데없는 짓을 했으며 씩씩히 웃는 난이는 다시 장대를 탄다. 하지만 난이는 장대를 타면서 구경 오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된다. 그들을 통해서 난이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젠 깨달았어. 우리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저마다 고달픈 일을 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더 위태롭고 어려운 일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59) 권정생, 「수몰지구에서 온 아이」, 『하느님의 눈물』, 산하, 1991.

60) 권정생, 「장대 끝에서 웃는 아이」, 『하느님의 눈물』, 산하, 1991.

기차간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난이는 그 동안 지나 온 술한 길에서 보아 온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사과 장수 할머니는 꼬부라진 허리를 두들겨가며 사과 광우리를 이고 다니던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팔이 소년은 새벽같이 일어나 언 손을 불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광 속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 아저씨, 끝없는 바다 가운데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 굳은 땅을 땀 흘리며 갈고 있는 농부들……. 서커스 관람석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늘도 난이의 웃음을 구경하러 오는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슬픈 사람끼리, 난이의 그 웃음을 보고 싶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난이는 그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

슬프게 살고 있는 사람끼리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답게 생각되었습니다.(113면)

돈벌이로만 이용되던 난이는 오히려 세상을 껴안는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난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슬프고 괴롭기만 한 난이가 아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장대타기로 해서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난이는 기뻐다. 세 끼 밥이나 조그만 잠자리 때문에 장대를 타는 것이 아니다. 장대의 동정을 사던 조그만 난이는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아를 가진 난이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이가 가진 것 없는 이를 위로하는 것이다.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⁶¹⁾에서는 많은 허수아비 부하를 거느린 허수아비에 빗대어 물질문명의 폐해를 그리고 있다. 걸어 다녀도 잘만 살면 되고, 기어 다녀도 배가 땡땡 부르면 되는 새들은 자신의 본성을 허수아비라는 물질문명에 빼앗겨 버린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날기를 포기할 때 새는 이미 새가 아니다. 자유로움 대신 ‘배부름’을 선택한 새들이다. 새들은 이제 배부름에 길들여져 허수아비 부하를 많이 거느린 허수아비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어린 새들은 그렇지 않다. 아직 본성에 충실한 배부름에 길들여지지 않는 어린 새들은 갑갑하기만 하다.

답답해진 것은 어린 새였습니다. 어리다는 것은 아직 정직하고 용감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어린 새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시원한 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우듯이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 까치, 새미, 딱따구리, 황새, 두루미, 메추라기, 독수리…. 어쨌든 그 많은 새들이 푸른 창공 높이, 한꺼번에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처음엔 어린 새들이, 다음엔 청년 새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어른들과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새들까지 두 날개를 훨훨 펼치며 날아올랐습니다. 너무도 쉬웠습니다. 산꼭대기의 허수아비는 진짜 허수아비밖에 되지 못

61) 권정생,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주니어, 2005.

했습니다.(139~140면)

산꼭대기의 허수아비가 무서워 날갯짓을 포기하고 살았던 새들이다. 날기 대신에 배부름을 선택한 새들이었다.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택했을 때 그것 또한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절망적 현실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존재'들에게 이미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허수아비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일 뿐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일들 곧, 살던 마을이 댐으로 만들어지고 어린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 물질 우선의 현실을 작가는 작품 속에 담담하게 담아낸다. “실로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편의주의와 물질적 풍요에 중독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물질적 안락과 편의주의에 중독될 때 사람들은 그것과의 절연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한 생활의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존의 토대를 망가뜨리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한다. 가난은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산업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해 온 결과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비극적 재난에 봉착한 것이다.”⁶²⁾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미화했을 때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작가의식이 리얼리즘으로 잘 구현되어 있다.

2) 전쟁의 폭력성과 고통

전쟁은 가장 비참하게 생태계를 파괴한다. 전쟁의 무서움은 환경파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마저 파괴시켜 옳고 그름의 사고를 마비시켜 버린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작가는 전쟁의 이러한 면모를 작품화한다. 그런데 권정생의 전쟁에 이념은 없다. 그는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으면서도 영웅을 등장시키는 법이 없다. 전쟁에 상처받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전쟁이야기 하면 흔히 적군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쓰여지고 영웅이 등장해 우리 편을 승리로 이끈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데 반해 권정생의 작품에서는 소련군의 총에 맞아 숨진 아버지와 미군에게 죽임을 당한 어머니 등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잔인하리만치 차분하게 그려진다. 전쟁이 끝난 자리도 전쟁과 마찬가지로 비참하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 전쟁의 잔재로 인해 또다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권정생 동화에서 전쟁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62) 김종철, 앞의 책, 26면.

우메노 료는 인간성을 규명해야만 과거의 학살을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전쟁 어린이 문학이 생겨났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전쟁 자체를 그렸다기보다 전쟁으로 인해 왜곡된 인간, 나약한 인간을 그린 어린이 책은 무수히 많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 사실의 전달이 아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닿아 있다. 그것을 밝혀냄으로써 현재 속에서 어제에 대한 책임, 또는 내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거기에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가 어떻게 살아야 했든가,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는가, 그 증언을 통해 현대 어린이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⁶³⁾고 했다.

전쟁이 작품의 주인공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단련시키고 그들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다는 주장도 있다.⁶⁴⁾ 하지만 그것이 전쟁을 매개로 주인공을 변화케는 할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성숙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전쟁 중에 어떤 사람과 사건을 만나 삶을 각성하게 되었다고 해서 전쟁 그 자체가 주인공의 인간적 완성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항상 전쟁은 그저 상처를 줄 뿐인 것이다.

권정생이 그리는 전쟁은 그래서 처절하다. 총을 쏘면 누군가 죽고, 폭탄이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전쟁에 대한 한 치의 환상도 없다. 아이들은 그의 동화를 읽고 전쟁에 몸서리를 칠 뿐 전쟁을 동경하지 않는다. 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처럼 전쟁이야기를 다루면서 영웅을 만들고 아이들이 장난감 총과 칼을 들고 싸우며 전쟁을 동경하게 만들지 않는다. 권정생의 작품에서 전쟁은 끔찍한 살상이 벌어지는 것, 하루 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권정생이 전쟁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는 마을』, 『몽실언니』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쟁을 배경으로 다룬 작품들이 모두 장편동화로 쓰여졌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년시절 전쟁을 몸소 겪은 권정생으로서 이를 단편으로 담아내기엔 양적 제약을 느꼈을지 모른다. 그만큼 전쟁은 그에게 중요한 체험이었다. 그는 자연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림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점득이네』⁶⁵⁾는 점득이와 점순이 그리고 판순이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이야기이다. 해방 후 점득이네가 만주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해방이 되니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두 잘 살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아버지 고향으로 향하

63) 우메노 료, 햇살과나무꾼 역, 『현대 어린이 문학』, 사계절출판사, 2003, 163면.

64) 최희구,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 - 전쟁 수용 작품 『몽실 언니』,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2면. 그는 이어 주인공에게 영향을 주고 성장함을 돕는 매개자가 있다며 고재식 아저씨는 후견인의 역할처럼 생존방식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계기를 갖도록 만들며 내적인 갈등을 통한 성숙을 준비하게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65) 권정생, 『점득이네』, 창작과 비평사, 1994.

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다 강을 지키는 소련군의 총에 맞아 아버지가 숨을 거둔다. 아버지 고향에 갈 수 없게 된 점득이네는 어머니 고향으로 발길을 돌린다. 하지만 이미 전쟁 기운이 감도는 어머니의 고향도 꿈에 그리던 그 고향은 아니다. 인민군이 된 승호형 때문에 집안은 난리가 난다. 누가 와서 연설을 한다면서 흰 옷을 입고 강둑에 모이라는 말을 듣고 나갔던 어머니는 비행기 폭격에 목숨을 잃고 점득이는 눈이 멀게 된다. 모두를 잃고 고아원 생활을 하게 된 점득이는 노래를 잘 불러 미국에 갈 기회가 생기지만 사촌형과 누나를 기다려야 한다며 미국 가는 걸 포기한다. 그러나 어머니 고향은 이미 철조망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래도 점득이와 점순이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고향에 가게 될 날을 기다린다.

가끔 아이들 편지를 받아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슬픈데 어떻게 슬픈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⁶⁶⁾

『점득이네』의 머리말에서 작가가 한 말이다. 작가가 직접 슬프다고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은 슬픔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냥 슬픈 작품이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 오는 슬픔이다. 뒤돌아설 틈도 없이 전쟁은 점순이, 점득이, 판순이를 옥죄어 온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촌형과 주위의 아는 많은 사람을 잃은 아이들이 할 일은 그저 폭풍우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뿐이다.

노래를 잘하는 점득이는 미국에서 노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른 동화라면 으레 미국행을 선택하고 성공한 몸으로 귀국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질적·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꿈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점득이와 점순이는 고향에 가는 것이 꿈이다. 비록 고향에 가도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도 없지만, 고향에서 사촌형과 누나를 만나는 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진 점득이와 점순이에게 미국에서의 성공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모습인가? 전쟁이 없는 사회다. 그래서 그의 전쟁 이야기에는 고통과 슬픔이 몰아쳐 온다. 잔인하리만치 어떠한 동정심도 작품에 용납하지 않고 직접적·사실적으로 써내려 간다. 그러면서 전쟁의 폭력성을 냉엄하게 고발하고 있다.

『초가집이 있는 마을』⁶⁷⁾은 경상도 어느 산골 초등학교 아이들이 겪은 6·25전쟁 이야기이다. 유준이와 유종이 형제를 중심으로 그 친구들이 겪은 전쟁 이야기이며 전쟁

66) 위의 책, 5면.

67) 권정생, 『초가집이 있는 마을』, 분도출판사, 2007.

이 지나간 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전쟁 중에 결혼한 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금아 누나, 미군이 주는 낚시대를 받으려고 하다가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죽는 종갑이, 종갑이가 죽자 종갑이 따라 죽은 할아버지, 인민군이면서 북으로 가길 거부하고 종갑이네 집에 머무는 고재식 아저씨, 아버지가 북에 살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와 총을 겨누고 싸울 수 없다며 입대를 죽음으로써 거부하는 복식이,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고 살아가다가 끝내는 마을에서 사라져 버리는 인기 아버지가 그들이다. 모두들 전쟁의 상처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피난 간 사람들과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도 그려진다.

유준아, 우리가 지금 남북이 쪼개어져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기꾼 목자들이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올가미에 불과하단다. 우리가 도대체 서로 대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어디 있니? 정말 우리는 이 이상 죄짓지 말자꾸나. 싸움을 하려거든 너를 올가미에 묶어 공갈치는 물이꾼을 향해 싸워라.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우리 손으로 벗겨야 한다. 네 눈앞을 가려 버린 덮개를 떼어 버려라. 그래서 눈을 떠라. 해방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네 손으로, 네 몸으로 해방을 해야 한다. 사람은 해방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는 아무런 가치 없는 썩은 고기와 같다.(363면)

군 입대를 하루 앞두고 월북한 아버지와 총을 겨누고 싸울 수 없다며 자살하는 복식은 유서를 남긴다. 유서에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속지 말라고 하고 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 명령에 의해 총을 쏘지 말고 그 총을 쏘라고 명령하는 물이꾼에 대항하여 싸우라 한다.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몽실언니』⁶⁸⁾는 권정생의 대표작으로 전쟁을 겪은 한 소녀가 그 격동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몽실이의 삶은 밝히면 밝히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휘청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푸르게 일어서는 풀과도 닮았다. 해방을 맞아 귀국한 몽실이는 어머니가 형편이 나은 데로 개가 하면서 함께 가게 된다. 남동생이 태어나자 몽실이는 구박덩어리가 되고 급기야 새아버지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된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된 몽실이는 새어머니인 북촌택과 함께 산다. 아버지는 국군이 되어 전쟁터로 떠나고 북촌택은 죽는다. 남겨진 어린 난남이와 전쟁 중의 삶은 처참하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난남이를 동냥해서 먹여 살리고 그 와중에 또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는다. 난남이를 입양시키고 몽실이는 낚시와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콩나물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 결핵요양소에 들어간 난남이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맺는 이 작품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68) 권정생, 『몽실언니』, 창비, 2005.

질곡의 길을 걸어온 여성들의 삶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쟁이 어떻게 사람들을 피폐시키는가와 함께 전쟁 속에서 피동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약자인 여자와 어린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전쟁을 다룬 단편 작품으로는 「우리들의 오월」과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와 「무명저고리와 엄마」와 「토끼나라」 등이 있다. 「우리들의 오월」⁶⁹⁾은 전쟁이 끝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터지지 않는 폭탄들이 곳곳에 남아 아이들을 위협하는 이야기이다. 1학년 입학 을 꿈꾸는 동근이와 장수, 순늬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순늬이 오빠 창익이를 마중 간다. 가는 중에 길쭉한 사이다 병처럼 생긴 쇳덩어리를 발견한다. 모여든 아홉 명의 아이들, 쇳덩어리를 엇 바퀴 먹자고 하며 쿵쿵 쇳덩어리를 두들긴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베갯덩이 만한 차돌맹이를 주워다 쇳덩어리에 내리친다. 한 순간에 그 쇳덩어리가 터지면서 아이들은 모두 죽고 만다.

팔이 떨어져간 아이, 다리가 떨어져간 아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상처가 난 아이, 한 순간에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100면)

“동근아, 할아버지를 만나면 보여줄 거라고는 너 하나뿐이었는데... . 6·25가 너의 할아버지를 끌고 가 버렸구나. 동근아, 동근아아.....”(102면)

“전쟁이 있고, 사람이 죽고, 슬픈 한국의 아이들이 있는 5월, 그 5월은 동근이의 할머니처럼 소리 없이 찢어지듯 울고 있었다.(102면)”로 끝을 맺는 동화는 한번 일어난 전쟁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지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남긴 것은 죽음과 이별과 폐허만이 아니다. 폭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 반세기가 지난 전쟁이지만 그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말하고 있다.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⁷⁰⁾는 30년이 지난 전쟁이지만 아직도 산비탈에 누워 있는 영혼들에게 전쟁의 아픔이 그대로 있음을 보여준다. 피난 가다 뒷통수에 총을 맞고 죽은 곰이는, 지금도 뒷통수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인민군인 오편돌이 아저씨는 가슴에 총을 맞고 죽었는데, 지금도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흐른다. “인민을 위해 싸운 건데 죽은 건 모두 인민뿐.....”(70면)이라는 오편돌이 아저씨 말에서 이념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한다. 곰이를 빌려 말하는 두 마리 호랑이와 오누이 이야기는 전래동화를 우리 근대사에 비유해 그려나가고 있다. 권정생은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중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무참히 짓밟히는 이야기를 쓴다.

「무명저고리와 엄마」는 우리 근대사를 서사시처럼 써 내려간 작품이다. 당선소감에

69) 권정생, 「우리들의 오월」,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주니어, 2005.

70) 권정생,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주니어, 2005.

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작품은 작가의 어머니이자 5천만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⁷¹⁾ 일곱 남매를 낳은 어머니의 낡은 무명저고리에는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⁷²⁾ 엄마가 손수 물레를 갖고 베틀로 뽕뽕 짜서 지어 입은 무명저고리에는 일곱 남매의 냄새가 스며 있다. 아버지가 독립군이 되겠다며 집을 떠날 때는 저고리 옷고름이 흠뻑 젖도록 눈물을 닦았다. 독립군이 된 아들 복돌이, 동경유학을 떠난 차돌이, 징용으로 끌려간 삼돌이, 그러나 해방이 되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큰분이가 시집가고 전쟁이 일어난다. 큰분이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복녘 땅으로 끌려가고, 막돌이는 싸움터서 날아온 파편에 맞아 다리 하나를 잃고, 막돌이를 살리려고 또분이는 양공주가 되어 새까만 검둥이를 낳고 어디론지 몸을 감춘다. 막돌이는 월남전에서 전사한다. 이어 어머니는 막돌이의 한 쪽 다리를 부동켜안은 채 아빠와 늙름한 세 아들이 돌아오고 큰분이와 또분이가 색동저고리 빨간 땀기를 나풀거리며 따라오고, 막돌이와 무돌이가 귀엽게 걸어오며 엄마의 무명저고리에 안기는 모습을 꿈꾸며 숨을 거둔다. 어머니가 가꾸던 목화밭이 있는 산으로 올라간 막돌이는 엄마 저고리를 산마루 청솔가지 위에 펼쳐 놓았다. 때가 묻은 무명저고리에는 일곱 아기들의 코 흘린 자국들이 남아 있다. 소나기가 내린 후 비에 젖고 바람에 휘날리던 엄마 저고리를 가운데 두고 무지개가 피어났다.

이 작품에서 엄마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빼앗긴 아가들의 이름과 함께 수난의 역사를 온몸에 아로새기며 노동과 눈물, 탄식과 그리움 속에 숨겨가고 마는 인물인 것이다.”⁷³⁾ 막돌이가 한쪽 다리로 반 조각 땅을 딛고 서서 무지개 한 끝을 잡고 목화밭 위에 사뿐히 펼쳐 놓는다는 내용으로 끝맺는 이 작품은 막돌이가 한쪽 다리로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 역시 불안한 곳임을 말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품는 어머니 같은 사랑만이 근대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토끼나라」⁷⁴⁾는 우리 근대사를 의인화 기법으로 풀어나간 작품이다. 배나무를 가꾸

71) 권정생은 신춘문에 당선소감에서 “산골 마을, 음산하고 추운 나의 오막살이 방 안에도 오늘은 때 아닌 봄빛이 활짝 퍼진 것만 같습니다. 병고에 시달려온 나는 어느 때부터인지, 밝은 낮보다 어두운 밤하늘이 더 좋았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고운 별빛을 벗하며, 길고 긴 병상 생활에서 그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나의 어머니이자, 5천만 우리 민족의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를 꼭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화로 엮어나가기란 어려웠습니다. 50장의 원고를 3년 만에 탈고했습니다. 저승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함께 기뻐해 주세요. 워낙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소품을 빛을 보게 하신 심사위원, 그리고 조선일보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작업이지만, 계속 동화를 써나가겠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당선소감」, 『조선일보』, 1973. 1. 7.

72) 이원수는 「무명저고리와 엄마」를 당선작으로 뽑으면서 그 이유를 “일곱 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일생을 두고 외국의 침략과 전쟁 등에 그 자식을 빼앗기고 혹은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시적 문장, 상징적 표현을 해가면서 감동적으로 끌고 간 점이 높이 보였으며 우리나라 모성의 한 전형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조선일보』, 1973. 1. 7.

73) 김상욱, 「현실주의 동시의 세 가지 양상-권정생 동시론」,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74) 권정생, 「토끼나라」,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2005

며 평화롭게 살던 곳에 너구리가 쳐들어왔다. 너구리들은 토끼 임금을 죽이고 토끼 백성은 너구리 임금에게 항복해야 했다. 그러자 토끼나라를 돕겠다며 사자군사와 곰군사가 토끼나라에 들어왔다. 토끼들은 너구리를 쫓아낸 사자군사와 곰군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한다. 하지만 그들은 토끼나라를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토끼나라 한 가운데를 가시울타리로 막는다. 곰나라에 이런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할머니가 있다. 사자나라에 이런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할아버지가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한 톨의 배나무 씨를 심고 죽는다.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심은 배나무는 토끼들의 본성을 찾게 한다. 작가는 우리 근대사를 토끼나라와 너구리나라, 곰나라 그리고 사자나라에 빗대어 그려내고 있다. 조금은 도식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우리 근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북풍과 남풍에 몸을 맡긴 채 본성을 잃어버린 「가없는 나무」⁷⁵⁾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권정생의 작품은 결국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전쟁이란 것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책임을 강조한다. 전쟁은 전쟁 기간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오랜 시간동안 물질적·정신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핍박한다. 이는 ‘나라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전쟁은 남이 가진 것을 쉽고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는 나만 있고 남은 없다. 내 편만 있고 남의 편은 없는 것이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는데 전쟁에서는 인간마저도 남의 편이면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남의 편이 아니더라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단된다. 총살당하거나 폭탄에 맞거나 결국 죽음을 맞는다. 권정생은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파괴하는 데 있다고 암시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의 폭력성과 현실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 자연과 소외된 존재에 대한 재인식

서양적 사고는 자연을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반해, 동양적 사고는 인간과 자연의 구분을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특히 노장사상 내 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인간이 있다고 한다. “노장사상, 도가사상 같은 자연주의 사상은 내 속에

75) 권정생, 「가없는 나무」, 『아름다운 까마귀 나라』, 산하, 2010.

자연성이 들었고, 자연이라고 하는 큰 속에 인간이 있을 수 있으며, 산수(山水)간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자연에 맞추고 인간으로서는 억지로 함이 없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위(無爲)이다. 무위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행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무위’란 자연이기 때문에 무위이며, 그것을 강조한 것이 노장사상이라 할 수 있다.”⁷⁶⁾ 즉, 자연은 자연 그 자체대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며, 인간은 자연과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인식했을 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있다.

권정생의 작품에는 유독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과 비생물체를 의인화한 것이 많다. 동화의 특징이 그렇기도 하지만 작가는 유다른 점이 있다. 그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진정성을 잃어가는 인간을 보며 가슴 아파한다. 똥, 깔동바가지, 장대, 아기 소나무 등 모든 존재들이 함께 할 때 세상은 비로소 살 만하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유기체적 세계인식과 함께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인 것이다. 근대 이전에 대지나 산은 우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신이었으며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런 존재를 함부로 파헤친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나아가 결국 인간성 상실마저 초래하고 있다. 그는 이런 점을 잘 부각시킨 작가이다.

1)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관계

권정생 작품의 특징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게 한다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래 했다. 그러니 하느님은 곧 자연인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는 자연에서 얻는다. 결국 우리 몸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움직인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내 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또한 하느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⁷⁷⁾

「삼거리 마을 이야기」⁷⁸⁾는 자연과 인간의 유기체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76) 류승국, 「동양사상에서의 환경문제」,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1996, 30면.

77)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앞의 책, 19면.

78) 권정생, 「삼거리 마을 이야기」, 『달맞이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 햇빛출판, 1985.

를 다룬 작품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그리고 있다.

골목길엔 개들이 뛰어놀고, 지붕 위에선 수탉이 똬를 치며 ‘꼬끼오’ 운다. 송아지도 있고
엄마소도 있고 황소도 있다. 흙벽으로 된 뒤주엔 쥐가 구멍을 뚫어 놓고, 몇 십 년 묵은 지
붕 이영 깊숙한 곳에 능구렁이가 집지기로 살고 있다. 솔가지 나뭇가지 속엔 족제비가 숨어
살고, 뒷산에랑 앞산에는 늑대도 살고 오소리도 너구리도 살았다. 겨울철 눈 내리는 날엔 산
토끼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콩깍지를 훔쳐 먹고 똥을 봉당에 수북이 누어 놓고 간다.

삼거리는 그렇게 노루 똥냄새, 산토끼 오줌냄새, 오소리의 방귀 냄새로 조금은 텁텁하다.
그러나 봄이면 산에 들에 피어나는 진달래꽃, 살구꽃, 앵두꽃 향기로 사람들은 ‘훤훤’ 기운이
솟는다.(123면)

인간과 동물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로 뒤엉켜 뒹굴고 있다. 여기서
자연과 인간을 따로 나눈다는 것을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우리
이전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려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순수함, 공동체
정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작품 곳곳에서
서술하고 있다. 작가가 바라보는 공동체적인 삶, 서로에 대한 이해 등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동물과 식물은 물론이고 강가의 흙먼지서부터 강아지똥에게까지
우주만물 모두를 포괄한다.

「짱구네 고추밭 소동」⁷⁹⁾은 고추 도둑들에 대항하는 붉은 고추들의 이야기다. “역시
똥 심은 사람이 거뭇야 한다.”(53면)면서 고추들은 도둑이 담아놓은 자루에서 터져
나온다. 더운 여름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한결같이 자신들을 위해 애쓴 짱구네를 위
해 고추들이 행동에 나선다는 이야기다.

“애들아, 똥들 하는 거야!”

서로 꼭 끼어서 요동조차 못 했지만 한 고추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있는 힘껏 용을 써보자꾸나.”

“이대로 끌려가선 안 돼!”

“짱구네 엄마가 가엾어.”

“그토록 피땀 흘려 우리를 가꾸셨는데.”

“우리 주인은 짱구네 식구들이야.”

차츰 고추들은 빨간 빛깔 속에 간직해 뒀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54면)

79) 권정생, 「짱구네 고추밭 소동」,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주니어, 2005.

인간이 자연에게 최선을 다할 때 자연은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려준다. 다소 판타지적 요소가 짙은 이 작품은 맘을 흘린다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새끼 까치와 진달래꽃」⁸⁰⁾은 아이들의 돌팔매에 다리 부러진 새끼 까치를 노부부가 치료해 주었더니 이듬해 그 까치가 어른 까치가 되어 날아온다는 이야기다. 마치 「홍부전」을 연상하게 하는 이 작품은 다소 진부해질 수 있는 소재임에도 서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가난하지만 인간 본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시골마을 노부부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렸다.

「동근이와 아기 소나무들」⁸¹⁾에서도 사람과 동물과 나무들이 어울리고 있다. 아기소나무들은 매일 학교에 오가는 동근이가 며칠 쯤 보이지 않자 굴뚝새에게 부탁해서 동근이가 왜 학교에 못 가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다.

“어머나! 그럼 동근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만 살고 있던 말이지?”
아기 소나무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 지금 많이 아프시단다.”

“으앙!”

“으앙!”

아기 소나무들은 그만 울음보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동근아, 우리도 지금 엄마, 아빠가 없어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단다.”

아기 소나무들은 두 손을 가슴에 꼭 모두었습니다.(22면)

인간의 근본적 심성은 자연과 닮았다는 믿음이 작품에 깔려 있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의인화된 존재들은 모두 호칭을 갖는다. 능수버들 할아버지, 오소리 아줌마, 오소리 아저씨, 아기 소나무, 깜둥바가지 아줌마……. 인격을 갖춘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가 아니다. 작은 아기 소나무이다. 사물에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것은 자연 속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작가의식이 엿보인다.

『오소리네 집 꽃밭』⁸²⁾에서 회오리바람에 불려간 오소리 아줌마는 우연히 학교에 예쁘게 단장된 꽃밭을 보고 감탄한다. 이 꽃밭에는 이름조차 모르는 꽃들이 가지가지로 피어 있는 것이다. 잿골 집으로 돌아온 오소리 아줌마는 오소리 아저씨에게 예쁜 꽃밭을 만들자고 한다. 오소리 아저씨는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팽이로 밭을 일군다.

하지만 이미 집 앞은 온통 꽃이다. 패랭이꽃, 잔대꽃, 용담꽃 등 억지로 심거나 가꾸지 않아도 꽃이 동산에 만발하다. 꽃밭을 만들려고 틈난 데를 찾아보지만 여기도 저기

80) 권정생, 「새끼까치와 진달래꽃」,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 2005.

81) 권정생, 「동근이와 아기 소나무들」, 『떡구령이 기차』, 우리교육, 2005.

82) 권정생, 『오소리네집 꽃밭』, 길벗어린이, 1997.

도 모두다 꽃 천지이다.

“아니, 여보! 그건 패랭이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줌마는 봉오리가 맺힌 패랭이꽃을 쫄까 봐 황급히 아저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다른 쪽으로 돌아서서 팽이를 번쩍 들었다가, “영차!” 하고 땅을 쪼았어요.

“에구머니! 그건 잔대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아저씨는 조금 비껴나와, “영차!” 하고 땅을 쪼았어요.

“안돼요! 그건 용담꽃이에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이제 어느 쪽에서 팽이질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대체 꽃밭을 어디다 만들자는 거요?”

“꽃이 안 핀 데를 찾아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다 꽃인데 어디 틈난 데가 있어야지.”

그리고 보니 오소리 아줌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오소리네 집 둘레엔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으니까요.

모두 그대로 꽃밭이었어요.

잔대꽃, 도라지꽃, 용담꽃, 패랭이꽃….

“우리집 둘레엔 일부러 꽃밭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으로 피었구려.”

“그건 그래요. 이른 봄부터 진달래랑 개나리랑 늦가을 산국화까지 피고 지고 또 피니까요.”

“겨울이면 하얀 눈꽃이 온 산 가득히 피는 건 잊었소?”(21~25면)

자연은 그대로 두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뒷산을 다 파헤쳐 놓고 마당에 꽃밭을 가꾸네, 길가에 가로수를 심네, 자연을 복원하네, 어찌네 부산을 떼다는 것이다. 우연히 학교 꽃밭을 본 후 오소리 아줌마는 오소리아저씨와 함께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려고 하지만 집 둘레엔 이미 예쁜 꽃들이 지천이다. 순수하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한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가공해낼 수 있을까?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아름다움을 오소리 아줌마와 오소리 아저씨의 꽃밭 만들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비나리 달이네집』⁸³⁾에서 그려내는 내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비나리 마을에 늙수그레한 아저씨하고 달이라 불리는 강아지가 살고 있다. 달이에게는 다리가 세 개밖에 없다. 삼년 전 달이가 혼자 산에 놀러 갔다가 오른쪽 앞다리 하나를 잃었기 때문이다.

83) 권정생, 『비나리 달이네 집』, 낮은산, 2001.

며칠 뒤에 아저씨가 달이한테 물었어요.

“달아, 자동차에 치였니?”

“.....”

달이가 암말도 안 하는 걸 보니 자동차 사고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돌맹이로 때렸니?”

“.....”

그래도 달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노루 잡는다고 놓아 둔 갈고리 같은 덫에 치였니?”

그 때 달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25면)

사람들의 놓은 덫 때문에 세 개의 다리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달이는 그러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분명 야생동물을 잡을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덫일 것인데도 말이다.

강아지나 토끼나 산에 사는 노루나 늑대나 호랑이나 모든 짐승들은 사람들이 벌이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잖아요.

총칼도 안 만들고, 핵폭탄도 안 만들고, 거짓말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몰래 카메라가 없어도 도둑질도 안하고, 술주정뱅이도 없고, 가짜 참기름도 안 만들고 덫을 놓아 약한 짐승도 안 잡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요.

그러니까 달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짐승들은 스님 같기도 하고 도사님 같기도 할 수 밖에 없지요.

특히 달이 같은 쪼꼬만 강아지는 도사님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지요. 하늘을 쳐다보고 달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이지만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거예요.(32면)

이 동화는 강아지의 눈에 비친 사람의 모습, 강아지에 대비되는 인간 사회의 추악함을 느끼게 한다. 강아지의 눈으로 보면 종교의 교리와 의식 같은 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강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된 신부는 강아지와 같은 동물의 세계가 그리워 산골로 들어가 농사꾼이 된 것이다. “강아지가 스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다고 한 까닭이 이러하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어린아이들에게도 곧 느껴서 알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어린아이들의 삶에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동화라 하겠다.”⁸⁴⁾

「떡구렁이 기차」⁸⁵⁾에서 볼품없는 떡구렁이는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84) 이오덕, 『어린이책 이야기』, 소년 한길, 2002, 188면.

을 듣는다. 그러면서 “난 이담에 자라서 무엇이 될까?” 구렁이는 구렁이밖에 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언덕 위 늙은 팽나무 할아버지는 바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떡구렁이는 할아버지 말을 듣고 철조망에 막혀 북쪽으로 가지 못하는 기차를 보고 이담에 기차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저것 봐! 아직 구렁이가 있구나.”

“때려잡자, 잡아!”

떡구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몸을 움직여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먼저 길을 막아섰습니다. 돌맹이가 한꺼번에 빗발처럼 날아왔습니다.

“엄마야!”

뾰족한 돌맹이 하나가 등을 찔렀습니다. 떡구렁이는 한 바퀴 몸뚱이를 뒤틀며 꿈틀거렸습니다. 하얀 비늘의 배가 바깥쪽으로 나와 번쩍였습니다.

동강동강 몸뚱이가 잘려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여라, 죽여!”

(……)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화가가, 시인이 되겠다고 우쭐대던 사랑스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난, 그런 것까진 몰라.”

간신히 중얼거리고는 차가운 하늘을 향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171~173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한 생명을 살생하는 아이들의 행위가 무서울 정도다. 시인이며 화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던 아이들이었다. 분홍빛 둥근 얼굴에 슬기로운 까만 눈이 안타깝도록 귀여운 아이들이다.

떡구렁이는 대통령이 뭔지, 화가가 뭔지, 시인이 뭔지 모른다. 구름 너머에 있는 능수버들 할아버지 소식을 궁금해 하는 버드나무 할머니는 구석구석 마다 흩어진 돌맹이 하나까지도 모두 고향 잃고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떡구렁이는 그냥 슬픈 이들이 슬프지 않게 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싶을 뿐이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그런 존재들은 생태계 내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순환적 고리로 연결된 생태계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권정생에게 있어서 이처럼 자연은 곧 나 자신이고 내가 자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거나 소외됐다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정생의 작품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생태계 내의 모든 존재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임을 보여

85) 권정생, 『떡구렁이 기차』, 우리교육, 2002.

주었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며 자연에 속한 존재라는 인식을 할 때 우리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소외된 존재에 대한 애정

권정생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발전만을 지향하는 세대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순수함,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작품 속에 그려낸다. 그가 그려내는 이야기는 인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존재를 향한 애정으로 표현된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굼벵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황금 덩어리보다 강아지똥이 더 귀한 것을 알았고, 외롭지 않았다.”⁸⁶⁾고 주장한다.

황금 덩어리보다 강아지똥이 더 귀한 것은 요행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껴안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권정생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유폐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선택한다. 다만 그저 낮은 곳에 기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은 존재임을 오롯이 깨닫고 있는 인물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인물들의 ‘울음소리’를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이 인물들은 ‘참다못해’ 울음을 터뜨리지만, 정작 울음소리는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안으로 깊이 움츠러드는 울음이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들의 울음을 받아줄 존재 역시 사람이 아닌 초월적 존재였기 때문에 울음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흐느낌으로만 안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⁸⁷⁾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 「깜둥바가지 아줌마」, 「오누이 지렁이」,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 등에 등장하는 시궁창에 빠진 똥배나 깜둥바가지, 지렁이, 흙먼지 등은 지금까지 동화에서 취급되지 않던 소재들이다.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과 소외받던 것들이 그의 동화에서 생명력과 생기를 부여받는다. 이런 소재들은 고통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다. 소외된 존재들은 자신의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여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나름대로 진리를 터득해 간다.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어른들에게도 읽히게 된 것은 아마

86)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앞의 책, 12면.

87) 김상욱, 「낮은 곳에서의 흐느낌」,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비, 2002, 173면.

한국인이면 누구나 체험한 고난을 주제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⁸⁸⁾

작가도 자신의 동화가 슬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살아온 삶이기 때문이다. 물질을 앞세운 서양 문명의 시각에서 동양인의 삶과 정신은 전근대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우리 민족은 식민지 시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다. 서구의 이원적 사고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의 삶이지만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동화에 등장하는 소외된 존재들은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거듭나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⁸⁹⁾는 소외된 존재를 그린 작품으로 권정생 동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돌이는 배나무 위로 올라가 뽕배를 따먹으려고 했으나 너무 떨어져 먹을 수 없었다. 돌이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훌쩍 던져버린다. 뽕배가 씨앗 날아가 우물 모퉁이 시궁창에 철썩 떨어진다. 이제 흰칠한 배나무에 탐스럽게 열렸던 귀여운 아기 뽕배의 모습은 간 곳이 없다. 시궁창은 모든 것이 물컹물컹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이제 곧 물렁해지고 썩어갈 것이라는 장구벌레의 말을 듣고 뽕배는 슬픔에 잠긴다. 하지만 아기벌과 달나라 여행을 다녀온 뽕배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인 생긴다. 그런 뽕배로 인해 시궁창은 향기로 가득찬다.

“아아, 꿀 냄새 봐.”

“아냐, 선녀님의 분 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장구벌레들은 물구나무 재주를 부리며 제멋대로 지껄여대었습니다.

“나한테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지?”

뽕배가 던지시 물었습니다.

“그래, 시궁창은 참 좋은 냄새로 가득차어.”

뽕배는 어젯밤 보고 온 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보았을 때, 주검처럼 쓸쓸했던 그 광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은 잇따라 지껄여대었습니다.

“저 뒤쪽에서 죽은 뽕감도 살았을 땐 참 달짝한 냄새를 풍겨줬어. 그러다가 차차 그 냄새가 다하고 나니 죽어 버린 거야.”

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뽕감은 죽지 않았어.”

“응, 아마 그럴 거야, 우린 뽕감의 달콤한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65면)

88) 이철지 엮음, 『권정생 이야기 1』, 앞의 책, 22면.

89) 권정생,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 창비, 2006.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곳이 되기도 하고 삭막한 바람만 부는 곳이 되기도 한다. 뜰배가 한 쪽 눈을 감고 본 세상과 두 쪽 눈을 다 뜨고 바라본 세상은 너무 다르다. 결국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는 각자 선택의 문제이지만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할 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뜰배는 가장 비천한 곳에 처박혀 있지만 이윽고 뜰배는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베푸는 존재로 거듭난다. “시궁창도 귀한 영혼이 숨쉬는 삶의 한 귀퉁이”⁹⁰⁾인 것이다.

「까마귀 나라」⁹¹⁾에서는 까마귀들이 검은 모습이 부끄러워 모두 덕지덕지 치장을 하고 다닌다. 울음도 까악까악 울지 않고 까울랑 까울랑 그렇게 울어야 한다. 아기 까마귀들은 덕지덕지 다른 이의 깃털을 붙이고 다니니까 날기가 힘들고 본성을 거스르고 까울랑 까울랑 울러니 힘들기만 하다. 하지만 훌륭한 나라의 새들이 까마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기 까마귀들은 다른 이의 깃털을 다 털어내 버리고 힘차게 날아오른다. “진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사는 거야.”(48면)라며 날아오르는 아기 까마귀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본성을 찾는 데 성공하고 있다.

「병어리 동찬이」⁹²⁾는 구박덩이이다. 동찬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얼렁얼렁’뿐이다. 어머니가 따뜻한 밥 한 덩이를 쥐도 ‘얼렁얼렁’거리고 어른들이 포악하게 싸우는 모습에도 무서워서 멀리서 ‘얼렁얼렁’거린다. 동찬이는 사람들이 화날 때 모습과 정답게 대하는 모습을 표정으로 가려낸다. 눈을 부라리며 입을 짹 크게 벌리면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다. 동찬이는 화난 사람들의 얼굴보다 차라리 소의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한다. 강아지 얼굴이, 댕굴 뒷산 커다란 소나무 모습이 훨씬 멋지게 보인다. 흔히 동화 속의 바보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바보에서 벗어나거나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 감동을 전해 주려 하지만, 주인공 동찬이는 그냥 병어리 동찬이다. 어떠한 상황도 왜곡시키지 않는다. 존재 그대로를 인식하고 바라봄은 생태적 사유의 시작이다.

권정생은 흙먼지에게까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⁹³⁾은 장대비가 퍼붓자 흙먼지 아이들이 비에 떠내려가면서 주고받는 말로 이루어진다. 결국

90) 이재복은 “권정생은 이 시궁창이란 냄새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호물호물 썩어가며 죽어가는 죽음만이 존재하는 어두운 공간을 말 그대로 시궁창의 세계로만 보고 지나치지 않았다. 권정생에게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썩어가는 죽음의 더러운 공간으로만 보였던 그 소외된 공간이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로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권정생은 그런 영혼이 숨쉬고 있는 소외된 어둠의 현장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권정생의 동화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인 시궁창과 같은 어두운 현장에 갇혀 있던 버려진 존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평한다. 이재복, 「시궁창도 귀한 영혼이 숨쉬는 삶의 한 귀퉁이」, 『우리 동화 바로 읽기』, 한길사, 1996, 227면.

91) 권정생, 「까마귀 나라」, 『하느님의 눈물』, 산하, 2005.

92) 권정생, 「병어리 동찬이」,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주니어, 2005.

93) 권정생,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2005.

은 흙먼지 아이들이 모이고 모여 섬마을이 되고 농부들이 기름진 땅이라고 좋아하는 장면으로 끝맺지만, 그 과정은 흙먼지 아이들의 자기 성찰의 과정이다. 즉 자기를 다 내어놓아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봐.”

“그러게 말야. 무서운 장대비를 시켜 우리들을 정든 고향에서 내쫓았어.”

“하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비가 오지 않으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잖니?”

“마실 물이 없어서 아기 염소랑 송아지랑 목이 말라 죽어버릴 거야.”

“그럼 세상이 바짝 말라버리겠구나.”

“아이구, 정말 무섭다.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비가 안와도 안 되고, 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떠내려가 버리고….”(119면)

비가 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흙먼지 아이들은 혼란스럽다. 쉬지 않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황소이야기, 살구나무 이야기, 벼들피리 이야기를 한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흙덩이들은 모두 모여 커다란 땅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다. 산산이 부서져 아무 것도 아닌 존재들이 모여 다시 태어난 셈이다. 그들은 혼자 살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면서도 언젠가 고향을 다시 찾으리라는 소라 할머니의 말에 희망을 품는다. 그런 희망들이 모여 섬나라 땅덩어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장편동화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⁹⁴⁾는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걱정되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하느님은 예수님과 함께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아보려고 세상 속으로 내려온다. 예루살렘이 목적지였는데 바람에 불려 대한민국 농촌 수박밭에 떨어진다. 자신의 모든 권능을 내려놓고 세상에 내려와 세상살이에 서툰 하느님과 청소부로 취직 하기도 하고 노점상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는 예수님, 부모 없는 떠돌이 여자아이 공주 그리고 이들과 서울 판자촌에 함께 정착하게 된 이산가족 할머니 과천택이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숨어 있기에 비참하지 않은 ‘가난 이야기’이다.

「보리이삭 쫄 때」⁹⁵⁾는 앓은뱅이 탐이 아주머니 이야기이다. 탐이 아주머니는 바가지 를 들고 무릎걸음으로 이집 저집을 다니며 밥을 얻어먹는다. “넌 체면도 없니? 우리도 배를 못 채우는 판에 매일 줄 수는 없어.”(10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귀보다 가슴이 더 아프다. 하지만 그보다 더 몸쓸 욕을 하고 내쫓는다 해도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

94) 권정생,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산하, 2005.

95) 권정생, 「보리이삭 쫄 때」,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2004.

다며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리밥이라도 한 번 실컷 먹어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며칠 후 탑이 아주머니는 숨을 거둔다. 마음씨 좋은 청년 몇이 뒷산 양지별에 아주머니를 묻어준다. 아주머니 품에서 나온 동전 몇 푼으로 청년들은 산을 내려와 막걸리 한 잔씩을 마시며 끝난다. 이와 비슷한 동화로는 「따리골택 할머니」⁹⁶⁾가 있다.

작가는 이처럼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동화에 불러들여 그들의 삶과 아픔을 함께 이야기한다.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동정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뿐이다.

그는 지금껏 아동문학에서 다루지 않던 소재들을 끌어들인다. 현실에서도 소외받고 또 동화에서조차 외면 받던 것들이 그의 동화에서는 생명력과 생기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을 통해 거듭난다. 더욱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다.

권정생의 소외된 것들을 향한 애정은, 체념이나 좌절로 끝맺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거듭나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지향한다는 데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소외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모두 생태적 순환구조 속에서는 커다란 자연계의 극미한 일부분에 다름이 없고, 그것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된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생태적인 가치와 그에 대한 애정으로 인한 것이지 감정의 쓸림이나 감상적 기분 표출이 아니다. 이는 그의 동화가 이전의 동화들과 구분되는 한편으로 우수한 생태주의 문학으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3. 자기희생을 통한 생명의식 구현

모든 것은 살아있고 또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하고 나만을 내세울 때, 인간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때 생태계 복원은 더욱 요원한 것이 된다. 한 그루 나무를 베면 그 옆에 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아야 하듯,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면 나 또한 희생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나와 너, 결국 우리가 함께 가야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상생의 길인 것이다. 상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그의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상생과 공존이다. 이는 인간 스스로 각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가 구현해 나

96) 위의 책.

가야 할 인류의 과제이기도 하다.

작가는 자연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살게 할 때 비로소 나도 살게 된다. 그의 대부분 작품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상생하는 삶이다.

노자에게 있어서 여성적인 것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모성에서 발원하기 때문이다. 온갖 것을 먹이는 어미는 무궁무진한 변화 생성의 근원이다. 여성적인 것의 무궁한 생성 작용을 노자는 ‘신비한 암소’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은유는 결국 모두 ‘자연’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문명의 여성 지배는 자연 지배를 통한 자연 파괴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노자는 여성적인 어미로서 자연을 귀하게 여길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다. 그러한 어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자기가 낳아 기른 것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⁹⁷⁾

어머니로서의 자연은 자기가 낳아 기른 것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고 노자는 말한다. 권정생의 문학도 이런 자기희생의 모성성과 생명평등을 구현하고 있다.

1) 자기희생과 모성성

권정생의 생태주의적 사상은 자기희생과 모성성에 의해 잘 발현되고 있다. 생태계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고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줌으로써 결국 새롭게 태어나게 되지만, 그 역시 그런 것을 바라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게 보람된 일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희생과 생태적 순환이 그의 작품에서는 잘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존재를 통해 나타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체념⁹⁸⁾이라 하기도 하고, 좌절이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작품의 본질을 파악해보면 좌절도 체념도 아닌 긍정적 가치관과 소망으로 대치됨을 알 수 있다. 못난 것들이 못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어시장 이야기」⁹⁹⁾에서 권정생은 문어할아버지 입을 빌려 어떻게 살아야 참 삶인지를 말하고 있다.

97) 이성희, 「생명철학으로서 노장사상」, 문현병 외 엮음, 『상생의 철학』, 동녘, 2001, 320면.

98) 김서정은 평론집 『어린이문학 만세』에서 “그러나 몽실이의 사랑과 희생은, 고난을 넘어서 더 나은 자아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나 보편적 인간 사랑의 정신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운명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서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서정, 『어린이문학 만세』, 푸른책들, 2003, 87면.

99) 권정생, 「어시장 이야기」,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2005.

“그래, 맞았어. 우리들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려면 거추장스러운 우리 몸뚱이를 전부 아낌없이 써야 한단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들의 임무를 다하여 내 몸을 남을 위해 바쳐 일하면, 저절로 영혼은 꽃처럼 곱게 피어난단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푸른 바다 속 숨어 있는 진주알처럼 반짝이고 있단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향 바다로 가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정답게 살아가는 거야.”(116면)

권정생에게 있어 ‘몸’이란 벗어 던져버려도 그만인 옷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작품에서 소외된 존재들은 남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지만 결코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런 희생을 통해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로 거듭난다. 문어 할아버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거추장스러운 몸뚱이를 인간들의 먹이로 던져 넣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자기희생과 모성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몽실언니』와 『강아지똥』을 들 수 있다.¹⁰⁰⁾

1974년 발행된 동화집 『강아지똥』¹⁰¹⁾의 머리말에서 권정생은 “거지가 글을 썼습니다. 전쟁마당이 되어 버린 세상에서 연어먹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습디다. 어찌나 배고프고 목말라 지쳐버린 끝에, 참다못해 터뜨린 울음소리가 글이 되었으니 글다운 글이 못됩니다.”라고 썼다. 여기서 작가의 울음과 강아지똥의 울음은 같은 울음이다. 권정생의 글들은 모두 이렇게 ‘참다못해 터뜨린 울음소리가 글이 되어’ 나타난다. 배고프고 목말라 지쳐버린, 하지만 끝내 세상을 끌어안은 『강아지똥』은 자기희생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교과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강아지똥』을 쓴 것이 이제부터 30년 전인 1968년 가을에서 1969년 봄까지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꽃이나 해님이나 별같이 눈에 잘 보이는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이는 것보다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꾼 거지요. 그래서 버려지고 숨겨진 목숨을 찾아 그것들을 이야기로 썼던 것입니다.”¹⁰²⁾

『떡구렁이 기차』 머리말에서 작가는 『강아지똥』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누구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못보는 것을 찾아내어 동화에 담아내기 시작한다. “돌이네 흰둥이가 똥을 똥어요. 흰둥이는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1면) 이렇게 시작된 강아지똥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이다. 자기 정체

100) 『몽실언니』는 전쟁의 폭력성과 현실적 고통에서 고찰했으므로 여기서는 『강아지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다른 논문이나 비평서에는 『몽실언니』를 모성성이나 자기희생의 전형으로 연구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런 희생의 원인을 전쟁에 두고 『몽실언니』를 Ⅲ장 1절 2)전쟁의 폭력성과 고통에서 고찰하였다.

101) 『강아지똥』은 1969년 월간 『기독교 교육』의 제1회 아동문학상 수상작이다.

102) 권정생, 『떡구렁이 기차』, 앞의 책, 4면.

성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똥 중에서 가장 더러운 개똥이라는 흙덩이의 말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어미닭을 따라 나온 봄날 병아리들에게 기꺼이 먹이가 되려고 하지만 찌꺼기만 있고 먹을 게 없다는 어미닭의 말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강아지똥은 별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은 후 정말 별이 된다. 스스로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위한 거름이 되어줌으로써 거듭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강아지똥이 자신의 몸을 잘게 부수어 민들레 몸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자기희생이 엿보이지만, 소달구지에 실려 오다 강아지똥 옆에 떨어진 흙덩이에서도 진한 모성성을 느낄 수 있다.

“강아지똥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지 마.”

흙덩이가 정답게 강아지똥을 달래었어요.

“…….”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흙덩이가 얘기를 시작하자,

강아지똥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어요.

(……)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무척 심했지. 그때 내가 키우던 아기 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해버렸단다.”

“어머나! 가여워라.”

“그래서 이렇게 별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 오다 떨어진 거야. 난 이젠 끝장이야.”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요.

“아니, 이진 우리 밭 흙이잖아? 어제 싣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군. 도로 밭에다 갖다 놓아야지.”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어요.¹⁰³⁾

가뭄이 심해 아기 고추가 죽자 마치 자기가 죽게 해버렸다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흙덩이는 그런 자신을 강아지똥보다 더 흉측하고 더럽다고 말한다.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키워내는, 그리고 여름에는 보랏빛과 하얀빛의 감자꽃도 피우는 흙덩이는 다 주어도 모자란 것만 같아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닮았다.

소달구지 아저씨 마음도 생태적이다. 흙덩이를 소중히 주워 담는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가 새롭게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길가에 떨어진 흙덩이쯤 하찮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흙덩이와 함께 곡식을 키워온 농부는 흙덩이의 마음을 알

103) 권정생,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2007, 9~13면. 이 그림책에는 면이 표시되지 않았으나 임의대로 첫 장을 1면으로 하여 면을 표기하였다.

고 있다. 소달구지 아저씨에게 흙덩이는 그냥 흙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흙덩이고, 생명을 키워내는 소중한 존재로서의 흙덩이다. 강아지똥과 함께 흙덩이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라는 흙덩이의 말을 듣고 강아지똥은 자신의 쓰임에 대해 생각한다. 결국 강아지똥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아름다운 민들레꽃으로 피어나고, 더러운 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작가는 이미 남들이 버려진 존재라고 업신여기는 오물덩이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¹⁰⁴⁾

「사과나무밭 달님」¹⁰⁵⁾에 나오는 필준이는 실성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이 마흔이 다된 총각이다. 그런 주인공을 마을사람들은 아무도 사람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머니와 자기를 맞대놓고 놀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자는 대로 다 한다.

“우리 동두깨비(소꿉놀이) 살까?”

“어머니 좋으실대로 하세요.”

필준이는 어머니와 소꿉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 등에 베개를 얹혀 줘.”

필준이는 어머니 등에 정성껏 베개를 얹혀 드렸습니다. 환갑을 다섯 해전에 지낸 안강택의 등은 요즘 들어 한층 굽어 있었습니다.

“네가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 아기는 네 어릴 적 아기인 거야. 바로 필준이 너란 말야.”

안강택은 베개 아기를 얹고 곧장 자장가를 부르며 토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26면)

필준은 열두 살에 풀머슴으로 남의 집 일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다. 미친 어머니를 아무도 집안에 들여놓아 주지 않아 강가 과수원지기로 가난하게 산다. 사람들은 가끔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필준이가 고생이라고 하면 그는 동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듣기 거북해한다.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보다 역시 어머니가 가엾기 때문이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사과나무밭 외딴집은 쓸쓸하지만, 필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과수원지기로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없이 행복하기만 하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필준은 분명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필준은 과수원지기지만 어머니와 함께여서 더없이 행복하다. 행복이란 물

104) 이재복은 이어서 “『강아지똥』은 전태일의 죽음과도 같은 침예한 갈등 문제를 동화로 담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이원수의 『불새의 춤』만큼이나 감동적이며 충격적인 동화”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읽기』, 한길사, 1996, 28면.

105) 권정생, 「사과나무밭 달님」,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2004.

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중달이 아저씨네」¹⁰⁶⁾는 어머니, 중달이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와 결혼한 아줌마 모두가 바보다. 아니 마을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른다. 조그만 밭빼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진수 어머니 말에 중달이 아저씨는 두 뼤이 있는 밭에서 자신의 밭 한 뼤을 쥐 버린다. 그리고는 기분 좋아한다. 밭이 두 뼤이었을 때도 살기가 힘들었는데 한 뼤을 쥐버렸으니 더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었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어머니, 밭을 하나 나눠 주고 나니 참 마음이 즐겁지요?”

“그렇구나. 넌 아주 마음씨가 착한 아이야.”

이렇게 어머니도 아들을 대견스럽게 여겼습니다. (29면)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바보같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는 ‘진정한 바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결국 작가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곧 자신을 위한 삶을 보여준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다른 생명을 묵묵히 사랑하고 실천하고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기 소나무」¹⁰⁷⁾에서 아기 소나무는 달님에게 얼른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왜 그렇게 빨리 자라고 싶느냐는 물음에 아기 소나무는 대답한다.

“저어기 산골짜기랑 시냇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슬픈 사람들이래요. 아들들은 군인으로 뽑혀가고 딸들은 도시의 공장으로 돈벌이 가고...”

“쫓쫓, 안됐구나. 정말... .”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은 달님만 쳐다보고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살고 싶어라.’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만큼 키가 자라서 튼튼해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를 베다가 초가집 짓고 살으시라고요.”(26면)

산등성이 외딴 봉우리에 혼자 살고 있는 아기 소나무는 산골짜기나 시냇가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불쌍하게 여긴다. 아들들은 군인으로, 딸들은 도시의 공장으로 가고 남아있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아기 소나무는 너무 가엾다. 아기 소나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점차 시골에도 물질문명에 휩쓸려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얼른 자라 자기 몸을 기꺼이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쉴 수 있는 초가삼간이 되겠다는 사고는 고귀한 자기희생이다. 그럼으로써 아기 소나무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

106) 권정생, 「중달이 아저씨네」, 『바닷가 아이들』, 창비, 2005.

107) 권정생, 「아기 소나무」, 『하느님의 눈물』, 산하, 2005.

다. 하지만 여기서 아기 소나무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런 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소」¹⁰⁸⁾는 한편의 시 같은 동화이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판하지 않는다. 꿈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마음으로만 얘기하는 소는,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는 남에게 상처가 되리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현대인들과 대비된다. 자신을 몰고 가는 아이가 사랑스러워 아이의 뜻대로 커다란 몸뚱이를 움직여주는 소는 마치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들의 어머니를 닮았다.

이슬에 떡 감은 풀잎. 소는 그 풀을 먹고 배가 똥똥 부른다. 참으로 편하다. 소는 그래서 바보 같다. 소는 코가 췌인 채 잡자코 끌려가 준다. 사람 대신 무거운 달구지에 짐을 실어다 준다. 소가 살이 찌면 사람들은 값을 얼마쯤 올려 매긴다. 그러나 소는 그림처럼 언제나 아름답다. 구정물 찌꺼기를 먹고 살아도 소는 하늘에 눈을 둔다. 소는 꿈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마음으로만 얘기한다. 아이가 고삐를 잡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소를 몰고 가면 소는 아이의 뜻대로 커다란 몸뚱이를 움직여 준다. 소는 아이가 귀엽다. 아침나절 풀 이슬 오솔길처럼 사랑스럽다. (40면)

이렇게 시작되는 「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소의 시선은 한없이 평화로워서 힘든 일을 하지만 힘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 장가를 갔고 세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지만 언제나 혼자였다. 하지만 주인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역시 소의 목숨보다 돈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팔려가면서도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소는 갑자기 걷던 걸음이 힘없이 멎어졌다. 소는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 자기가 여태까지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소는 속아 산다고 생각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달구지를 끄는 일도, 밭갈이를 하는 것도 모두 즐거운 자기 몫의 일로만 생각했다. 좀 더 정성껏, 좀 더 부지런히 일하고 싶었던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했다. (48면)

소는 알고 있다. 주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봉사하는 일은 되도록 값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소는 마을에서 멀어져 왔을 때 뒤돌아본다. 자기희생의 삶을 우의적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소는 밭 갈고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08) 권정생, 「소」,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2004.

오히려 채찍을 들어 자신을 때려도 주인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만큼 비참해하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까지 끝없는 자기 성찰을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길러져야 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 속에서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자라야 한다. 개는 개로 키워져 개로 살아야 하고, 닭은 닭으로 키워져 닭으로 살아야 하듯이, 사람도 사람으로 키워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훌륭한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109)

작가는 자연 또한 포장하려 들지 않는다. 모든 개체는 각각의 개체로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을 때 거기에 따르는 희생 또한 기꺼운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권정생의 동화로는 아기 황소와 할머니 소의 이야기를 다룬 「들국화 고갯길」¹¹⁰⁾이 있다.

「빼떼기」¹¹¹⁾는 병아리 이름이다. 따뜻한 봄날 아궁이에 들어갔다가 온몸이 불에 데어 겨우 살아난 빼떼기는 솜털은 다 타버리고 부리도 몽푹하게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모두 한 마디씩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마저 오그라들어 제대로 걷지 못한다. 순진이 어머니는 그런 빼떼기를 살뜰히 보살피 준다.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난다. 피난 가기 전에 순진이네는 닭들을 모두 팔았는데 빼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빼떼기 처리를 놓고 가족 간에 갈등이 벌어진다. 어머니는 차라리 그냥 버려두고 가자고 하고 순진은 다래끼에 담아 데리고 가지고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 본래부터 짐승을 키우는 것은 잡아먹기 위한 것이니 빼떼기도 잡아먹자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도 차마 빼떼기 목을 비틀지는 못해 앞집 태복이네를 불러 목을 비틀어 달라고 부탁한다.

“빼떡아.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피난을 가야 한단다. 그래서 너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너를 잡아먹는다. 너도 그편이 제일 좋겠지?”

아버지 말에 빼떼기는 그렇다는 듯 ‘꾸꾸 꾸꾸’ 지껄었다. (177면)

작가는 생명존중사상이나 동심을 내세워 빼떼기를 피난에 데려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빼떼기에게 하는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다. 아버지는 순간 빼떼기가 되어 되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보살피 준 사람들의 한 끼 식사가 되는 것이 빼떼기가 진정 바라는 바임을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것이다.

109) 권정생, 「유랑걸식 끝에 교회 문간방으로」, 『우리들의 하느님』, 앞의 책, 20면.

110) 권정생, 「들국화 고갯길」,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2004.

111) 권정생, 「빼떼기」, 『바닷가 아이들』, 창비, 1988.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한다. 생태계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고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줌으로써 결국 새롭게 태어나게 되지만 그 역시 그런 것을 바라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게 보람된 일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권정생의 생태주의관은 자기희생과 모성성에 의해 잘 발현되고 있다. 종교, 철학의 논리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이야기로 말하기에 독자들에게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체험처럼 다가온다. 더구나 이러한 희생과 생태적 순환이 그의 작품에서는 잘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존재를 통해 나타난다. 못난 것들이 못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다. 좌절도 체념도 아닌 긍정적 가치관과 소망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권정생의 동화는 이전의 우리나라 동화에서 곧잘 보여주던 센터멘탈리즘에 빠지지 않고, 모성성에 의한 희생이 새 희망으로 거듭나는 연결고리가 되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논리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권정생 동화가 생태주의 문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생명 존중과 생명 평등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체는 똑같이 생성·성장·변화·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근대 이후, 인간은 이 생태계의 최고 자리에 있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이 만연하게 되었다. 자신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연은 훼손되어 마땅하다는 사고는 개발을 가속화시켰다. 인간은 편리함에 환호하며 절대자로서 다른 종을 함부로 다루며 그들의 멸종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나무 하나, 돌 하나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옮길 때도 따로 날을 잡거나 의식을 통해 행해 왔다. 특히 동양적 사유에서 자연은 곧 인간이며 신이며 조상이었다. 한국의 전통사상에서도 “시적이자 미학적이며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이른바 ‘생생지리(生生之理 : 하늘이 사람과 물건을 끊임없이 낳는 이치)’에 따라 생명의 율동을 구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¹²⁾

인간이 잘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지금 한반도의 북쪽 아이

112)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16면.

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북쪽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의 전쟁, 가난, 질병, 외로움을 견디며 아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전쟁, 질병, 가난, 외로움, 공포, 이런 아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¹¹³⁾

김옥동은 최근 들어 이원론적 사고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선/악, 본질/현상, 정신/물질, 인간/자연의 경우처럼 모든 현상을 이항대립으로 보려는 이원론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¹¹⁴⁾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자연을 ‘나’나 ‘우리’가 아닌 타인으로 취급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용하기만 하면 개발하고 자연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논리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을 단순히 화학적 구조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따지고 보면 물이나 공기 모두 생명입니다. 거기에다 눈에 안 보이는 무수한 미생물, 작은 풀, 나무들, 날벌레, 새들, 산성비와 독가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토양과 숲과 강물, 이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근원적으로 볼 때 사람보다 대우를 못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목숨불이들입니다.¹¹⁵⁾

결국 생명은 모든 관계 속에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며 모든 생명을 소중하다. 권정생 이전에는 동심천사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 사상, 즉 사람을 위해 동물이나 식물이 죽고 인간을 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 당연시되어 왔다. 권정생은 이런 작품들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로 충격을 준다. 나무, 돌, 동물,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더럽게만 치부되던, 똥에게 생명을 주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는가 하면 시궁창도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고 그런 곳 역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피어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그려낸다. 상생과 희생정신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그의 산문집 곳곳에도 나타난다.

세상의 모든 목숨은 희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온몸을 희생하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이어져왔다.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을거리는 자연에서 얻는다. 공기로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온갖 동식물을 잡아먹고 산다. 결국 우리 몸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움직인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내 몸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또한 하느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¹¹⁶⁾

113) 권정생, 「함께 살아갈 어린이 문학」, 『어린이문학』 2002, 2월호, 3면.

114)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240면.

115) 김종철, 『시적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2002, 51면.

권정생의 동화 속 인물들은 누구 하나 모진 사람이 없다. 선악의 극명한 대비와 권선징악의 결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타 아동문학 작품들을 볼 때, 그의 동화에서는 캐릭터의 설정과 작중 인물 간 대립관계의 전개 없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모두 착하고 모두 안타까운 존재들이다. 작가는 세상이 그렇게 슬픈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작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감동바가지에게도 애정을 가질 수 있고, 천한 강아지똥에게도 자존감을 찾아줄 수 있었던 것은 생명평등과 상생의 철학이 밑바탕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느님의 눈물」¹¹⁷⁾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돌이 토끼는 자신이 먹어야 할 풀에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다. 모든 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먹지 말아달라고 한다. 돌이 토끼는 모든 풀들이 불쌍하여 차마 먹을 수가 없다.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먹어야 되는 다른 생명들을 생각하곤 가슴 아파하며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먹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 나의 생명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쫄녕쿨이랑 과남풀이랑 뜯어 먹으면 맛있지만 참말 마음이 아프구나. 뜯어 먹히는 건 모두 없어지고 마니까.’

돌이 토끼는 중얼거리면서 하얀 이슬이 깔린 산등성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난 먹어야 사는 걸. 이렇게 배가 고프는 걸.’

돌이 토끼는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둘레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쪼꼬만 아기 소나무 곁에 풀무꽃풀이 이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
다.

돌이 토끼는 풀무꽃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풀무꽃풀아. 널 먹어도 되니!”

풀무꽃풀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

“널 먹어도 되는가 물어 봤어. 어떡하겠니?”

풀무꽃풀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하겠니?”

바들바들 떨면서 풀무꽃이 되물었습니다.

“.....”

116)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앞의 책, 28면.

117) 권정생, 「하느님의 눈물」, 『하느님의 눈물』, 산하, 2005.

이번에는 돌이 토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답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니?”(10~11면)

작가는 생태계의 순환구조 속에서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짚어보고자 한다. 살아있는 것은 뭔가를 먹고 살아간다.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앗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생태계의 순환고리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먹을 때 최소한 그 상황을 인식하고 먹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크게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작게는 나무와 꽃 그리고 작은 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이런 생각을 갖고 행한다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유 없는 살생을 행하지도 않으리라는 인식을 나누려 한다.

「눈덮인 고갯길」¹¹⁸⁾에서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먼저 보낸 할아버지, 절름발이 덕구, 곱사등이 주식이네 모두 면사무소 앞에 줄을 서서 쌀 배급을 받고 길을 나선다. 전에 없이 추운 겨울날이지만 손수레에 쌀자루를 담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그들은 가진 것 없고 모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함께여서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선달 그믐날」¹¹⁹⁾은 시장 골목길 노점 상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다소 풍자적인 내용이다. 잔뜩 흐린 선달 그믐날, 시장 안으로 시키면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서고 그 승용차 앞머리에는 ‘불우 이웃 돕기! ○○ 부인회’라고 쓰인 하얀 띠가 둘러져 있다. 부산떨며 자동차가 지나가게 물건들을 치운 시장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무슨 일을 하건 꼭 요란하게 알리고 생색을 내며 행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작가의 메시지다. “공존은 성스럽다. 이웃 사랑은 남의 것을 빼앗지만 앎이면 된다. 되로 주고 말로 빼앗아가는 자선 사업은 가장 미워해야 할 폭력이다.”¹²⁰⁾라면서 자선 사업가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고발한다.

그 많은 노점 상인들은 야단법석을 떨며 치워놓은 물건들을 그냥 둔 채, 잠깐 동안 자동차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엇인가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우이웃이 저쪽 어딘가에 있나 보지?”

누군가 궁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시장 골목길로 갈 게 뭐야?”

“불우이웃을 찾아가자니까 좀 고생스러워야 하나 봐요.”(180면)

118) 권정생, 「눈덮인 고갯길」,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주니어, 2005.

119) 권정생, 「어느 선달 그믐날」,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주니어, 2005.

120) 이철지 엮음, 『권정생이야기 1』, 한결음, 2002. 23면.

시장 사람들이 된장국을 함께 끓여 먹는 장면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승용차에 불우이웃돕기 띠를 두르고 비좁은 시장 길을 승용차로 지나가는 장면은 누가 불우이웃이며 진정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작가는 여운을 남기며 끝맺고 있다.

생명존중사상을 간결하고 서정성 짙게 그려낸 작품으로 「고추짱아」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고추짱아 꼬리에 보리짚을 꽂은 아이는 심심한 장난에 지나지 않지만, 고추짱아 입장에 서는 그 장난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 다음은 「고추짱아」¹²¹⁾의 전문이다.

꼬리가 이상합니다. 빨간 고춧빛 예쁜 꼬리 대신 노릇한 보리짚 꼬리입니다.

조그만 아기 고추짱아입니다. 힘겨웁게 짱아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나, 도깨비 좀 봐!”

가을 시냇가에 핀 여뀌꽃들이 모가지를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아냐, 아냐, 도깨비가 아냐!

짱아는 금방 넘어갈 듯, 넘어갈 듯,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온 힘을 다해 날아갑니다.

시냇가 버드나무 가지에 가까스로 날아가 앉았습니다.

“네 꼬리가 왜 그렇니?”

버드나무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애가 그랬어요. 해바라기 울타리 싸리 가지에 깜빡 잠이 든 새 나를 붙잡은 거예요. 두 눈이 까맣고 날개 대신 기다란 두 팔이 나 있고, 두 다리가 있는 애예요. 내 빨간 때때옷을 뚝 떼어내고는 아파서 영영 우는 데도 모른 척 이렇게 보리짚을 쭈서 끼웠어요. 아, 나는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고추짱아는 가없게도 눈을 멀건히 뜬 채, 그만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꼭 붙잡고 있던 여섯 개의 발에 힘이 빠지면서, 나폴나폴 땅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74~79면)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재미로 하는 행동이 다른 생물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그려내고 있다. 모든 생명에는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이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는 내용이다. 아이들은 잠자리 하나도 소중한 생명체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장난삼아 잠자리 꼬리에 보리짚을 꽂은 아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난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잠자리를 그려내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가중된다. 작가는 담담하게 그려나가고 있지만 그곳에 안타깝게 고추짱아의 죽음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이 이야기는 작은 생명도 귀하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생명의 저울」¹²²⁾이라는 불교

121) 권정생, 「고추짱아」, 『하느님의 눈물』, 앞의 책.

경전에 실린 인도 설화에 ‘생명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길 수 있는가’를 묻는 설화가 나온다. 한 수행자에게 까치 한 마리가 찾아와 살려달라고 한다. 매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수행자는 매에게 까치를 살려달라고 한다. 매는 자신도 무언가를 먹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수행자는 할 수 없이 자신이 대신 매의 먹이가 되겠다고 한다. 매는 저울을 꺼낸다. 수행자는 작은 새의 몸무게만큼 다리살을 발라 저울에 놓는다. 저울의 눈금은 끄적도 하지 않는다. 다리 하나를 잘라 다 놓아도 눈금은 움직일 줄 모르고 두 다리를 잘라 놓아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수행자가 그 저울에 올라앉자 저울의 눈금은 작은 새의 무게와 같다. 목숨에 중하고 중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모든 목숨은 소중하다. 한 목숨은 또 다른 목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고 존중된다는 사상은 권정생 동화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소재화하기 어려운 철학의 영역을 아동문학의 영역에 자연스럽게 투영시켜 나간다. 인간중심주의의 사고에서 비롯된 선과 악의 긴장과 대립관계를 통한 이야기 전개를 권정생 동화에서는 찾기 힘들다. 그의 동화에서는 똑같은 생명과 생명 간의 차원을 달리하는 관계로 격상되고 있다. 일관되게 생명존중과 생명평등의 주제를 무겁지 않고 또 경박스럽지 않게 다룸으로써 상생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권정생 동화에 나타나고 있는 생태주의 세계관의 중요한 한 면모라 할 것이다.

122) 김경호, 『생명의 저울』, 푸른나무, 2006.

IV. 권정생 생태주의 동화의 위상과 의미

1. 공존과 상생의 문학

권정생은 동화작가이면서 사상가이다. 그가 추구하는 삶과 문학은 공존과 상생의 삶이다. 그러나 추구하는 공존과 상생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공존과 상생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자연이 자연답게 되어 아름답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삶을 말한다. 그의 동화가 한국아동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이전 아동문학과 큰 획을 긋는 의미를 찾는다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상은 책에서 관념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보고 듣고 느껴서 얻어진 것들이다. 그는 작품 속에서 농촌을 그리면서 목가적 농촌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힘겨운 삶을 그린다. 전쟁을 그리면서도 총을 들고 싸움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살아가는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의 삶을 그린다.

그는 전쟁과 가난과 병마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유년시절에는 가난과 전쟁으로, 청년기에 들어서서는 병마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한 때는 처지를 비관해 죽음을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세계관을 문학 속에 꽃 피울 수 있었다. 이런 작품 성향은 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 생쥐들이 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 잤다. 자다보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옷 속으로 비집고 겨드랑이까지 파고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 몇 번은 놀라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지내다 보니 그것들과 정이 들어버려 아예 발치에다 먹을 것을 놓아두고 기다렸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굼벵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황금덩이보다 강아지똥이 더 귀한 것을 알았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¹²³⁾

그의 작품은 이처럼 직접적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사색의 산물이다. 이러한 그의 삶은 문학에 그대로 투영된다. 한없이 낮은 곳에 있는 존재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 작품 속에 주된 주인공들은 소외받고 버림받아 존재의 의미조차 퇴색되어가는 생명들이다. 이는 곧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123)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앞의 책, 20면.

『황소아저씨』¹²⁴⁾는 상생하는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밤중이에요’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추운 한겨울 날, 외로운 황소와 엄마를 잃은 아기생쥐들이 함께 함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엄마를 잃어 동생들의 먹이를 구하려고 외양간에 나타난 생쥐들에게 황소는 구유속의 먹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자리까지 나누어 준다. 황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생쥐 형제에게 내어줌으로써 추운 한겨울,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된다.

“쥐도 전도사님 방에는 약을 놓아서 잡고 하지만 수없이 들끓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방뿐만 아니라 옆방에 곡식이랑 먹을 것을 두고 문을 열어 둔 채 밤을 지내도 끄떡없어요. 쥐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좀 먹어도 괜찮은데 안 먹어요. 추운 겨울날 밤엔 내 이불 밑에 몇 놉씩 들어와 자고는 아침에 살짝 나가는 것을 봅니다.”¹²⁵⁾

추운 겨울날 쥐들과 한 방에서 생활하곤 했던 작가 자신의 삶을 반영한 이 작품은 그의 동화에선 드문, 슬프지 않게, 따뜻하게 그려진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엄마가 갑자기 죽어서 동생들 먹이를 구하려고 외양간에 나타난 언니 생쥐나 구유에 먹이 찌꺼기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건넛집 할머니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는 황소나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다.

생쥐들은 황소 아저씨랑 사이좋은 식구가 되었어요.

황소 아저씨 등을 타넘고 다니며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했어요.

“오늘부터 나하고 함께 여기서 자자꾸나.”

“예, 아저씨!”

생쥐들은 아저씨 목덜미에 붙어 자기도 하고 겨드랑이에서 자기도 했어요.

겨울이 다 지나도록 따뜻하게 함께 살았어요.(31면)

『황소아저씨』의 마지막 장면이다. 혼자 외롭게 외양간에서 겨울을 보내던 황소는 생쥐들과 함께 함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된다. 자신의 몫을 양보하기보다는 남의 것에 눈이 먼저 가고, 물질적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내어주지 않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의적으로 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외에도 상생을 다룬 작품으로는 「삼거리마을 이야기」, 「눈덮인 고갯길」, 「어느 선달 그림날」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든 존재들이 함께 할 때 세상은 비로소 살 만하다

124) 권정생, 『황소아저씨』, 길벗어린이, 2001.

125) 권정생, 이철지 엮음, 『권정생 이야기 1』, 앞의 책, 292면.

는 것을 작품을 통해 전하고 있다.

그는 직접적인 체험을 사유의 과정을 거쳐 형상화하고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다. 모든 개체는 각각 개체로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을 때 거기에 따르는 희생 또한 기꺼워지는 것이 권정생만이 갖고 있는 문학세계이다. 혹자는 그의 사상을 패배주의 또는 운명에 순응하는 문학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¹²⁶⁾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어머니가 자식 위해 희생해도 그랬다고 말하지 않듯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한다. 생태계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고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줌으로써 결국 새롭게 태어나게 되지만, 그런 것을 바라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게 보람된 일이어서 하는 것이다.

다만, 김동윤은 생태주의와 관련, 생태주의 문학이 경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속세를 떠나 생태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이야기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사회변동과 역사적 상황에 끈을 대고 있어야 좀 더 의미가 클 것이다.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물신숭배의 풍조 속에서, 허리 잘린 분단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어 전횡을 구사하는 녹색맹들의 횡포 아래 신음하는 삶이라는 이중의 고통이 생태학적 상상력과 함께 문학 작품에 진득하게 배어 있어야 한다. 신음하는 민중들의 현실을 묵과하면서 생태주의만을 추구하는 것도 모순이다. 따라서 정치적·사회적 참여가 거대한 생태계의 흐름에서 보면 한갓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생태주의 문학에서 정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¹²⁷⁾

이러한 의미에서 김동윤이 주장하는 생태주의 문학정신은 권정생이 추구하는 문학정신과 매우 유사하다. 권정생은 작품 속에 우리의 근대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려 했다. 우리 농촌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되 목가적 농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상처 받고, 물질문명의 지배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옥은 “권정생 작품에 담긴 현실이 지극히 비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재에 짓눌려 미적 아름다움이 훼손될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동과 아름다움을

126) 김서정은 평론집 『어린이문학 만세』에서 “그러나 몽실이의 사랑과 희생은, 고난을 넘어서 더 나은 자아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나 보편적 인간 사랑의 정신에서 나왔다고보다는, 운명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서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서정, 『어린이문학 만세』, 푸른책들, 2003, 87면.

127) 김동윤, 「우리 장편소설의 생태주의적 사유 방식」, 『우리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 리토피아, 2004, 228면. 또한 김동윤은 임영봉 평론집 『생성과 소멸의 언어』 서평에서 “생태소설이 고유의 내적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생태주의적 사고가 사회변혁의 문제와 결부하여 역동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지적한다. 김동윤, 「정갈한 성실주의자의 중용적 글쓰기-임영봉 평론집 『생성과 소멸의 언어』, 『소통을 꿈꾸는 말들』, 리토피아, 2010, 274~275면.

지닌 것은 전언을 명확하게 언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교훈을 언어로 제시하기보다 인간의 삶, 인물의 성격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의 급박함과 거칠음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희망의 전언을 결말에서 서둘러 제시하기보다 인물이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그 가치 선택과 행동의 이면에 어떠한 마음이 떠올랐다 가라앉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전하기 때문이다.”¹²⁸⁾라고 평한다.

작가는 가난과 병고, 6.25 전쟁과 분단 등을 거치면서 똥, 생쥐, 깡동바가지, 시궁창에 빠진 똥배, 자반고등어 등 이전에는 문학의 소재로 이용되지 않던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기존 동화의 주류를 이루던 교훈적이거나 불행이 그저 잠시 유보된 채 행복한 결말을 맺는 ‘동심천사주의’¹²⁹⁾ 동화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문제적 작가로 등장한다. 그의 작품에는 전쟁영웅도, 전지전능한 인물도 나오지 않는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이야기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애정을 담아 존재 가치를 찾아 주고 있다.

권정생의 삶의 화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살 수 있을까?”¹³⁰⁾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문명의 혜택으로 편리와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수많은 동식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상이 뒤죽박죽되다 보니 이제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가치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한다.

과연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객체는 있어도 독자는 없다. 만물은 싫든지

128) 김상욱, 앞의 책, 175면.

129) 동심천사주의는 “중국의 고전에서 출발한 동심의 개념은 ‘순진한 어린이의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심’ 등의 의미로 사상사 이탁오(1527~1602)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이다.” 김상욱, 『어린이 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7, 312면. 동심주의 혹은 동심천사주의라는 용어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아동문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방정환의 어린이문화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방정환은 『어린이』 창간호 머리말에 어린이를 하늘의 마음을 닮은 천사 같은 존재 즉, 동심여선(童心如仙)이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 후 동심천사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방정환을 중심으로 했던 동시천사주의문학에 대해 카프동화작가들은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다.”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읽기』, 소년한길, 1996, 31~35면.

② “아이들을 세상모르는 천사로 살아가도록 아름답고 명랑한 <착한 아기식> 얘기만 들려주고, <딸랑 딸랑 방울이 딸랑>식의 노래만 들려주어야 한다는 동심천사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이오덕,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 비평사, 1996, 218면.

③ “정작 더 폭넓은 관점 속에서 동심천사주의’나 이오덕의 ‘동시본성주의’ 모두 ‘동심’을 동일한 구분모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김상욱, 『어린이 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7, 312면.

④ “방정환의 동심천사주의는 아동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천사에 비유하거나 영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중현, 「해방기 담론의 동시적 특징」, 『동심의 발견과 해방기 동시문학』, 청동거울, 2008, 237면.

⑤ “이 무렵의 아동문학은 후대 이론가들에 의해, 국가적 교육 목표에 순응하는 교훈주의와 순수하고 착한 동심을 지향하는 일명 ‘동심천사주의’에 치우쳐있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양연주, 「권정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i 면.

130)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앞의 책, 78면.

좋은지 어울려 살아야 한다. 은하계의 별 하나도 제멋대로 이탈했다가는 끝장이 나버린다. 마구 뒤엉켜 살아가도 엄연히 우리는 하나의 고리에 이어지는 한 목숨이다. 나무나 풀이나 바위도 물도 모두 남이 아니라 하나이다. 나무를 모시는 것은 인간 자신을 모시고 하느님을 모시는 원칙이다.¹³¹⁾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마을에서는 ‘권 집사’라 불리어졌다. 병마와 싸울 때는 교회 마룻바닥에 밤새 엎드려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에게 하느님은 절대자로서 받들어 모시는 하나님이다.¹³²⁾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했던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¹³³⁾에서 하느님은 과천댁, 예수님, 고아인 공주와 함께 한 가족을 구성한다. 모든 것을 구원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만은 없어 이 세상에 내려온 하느님과 예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그려진다. 『비나리 달이네 집』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어린 아이들에게도 곧 느껴서 알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어린아이들의 삶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동화이다.”¹³⁴⁾

권정생의 동화에서 고난 극복방법은 힘 있거나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나타나 도와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일관되게 택하고 있다.

그의 동화에서 공존과 상생은 최고의 덕목이다. 스스로도 밝혔듯이 공존과 상생은 성스럽다. 이웃 사랑은 남의 것을 빼앗지만 않으면 된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

131) 위의 책, 193면.

132) 권정생은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뽕죽탐에 십자가도 없애고 우리 정서에 맞는 오두막 같은 집을 짓겠다. 물론 집안 넓이는 사람이 천 명에서 백 명쯤은 앉을 수 있는 크기는 되어야겠지. 정면에 보이는 강단 같은 거추장스런 것도 없이 그냥 맨 마룻바닥이면 되고, 여럿이 둘러앉아 세상살이 얘기를 나누는 예배면 된다. ○○교회라는 간판도 안 붙이고, 꼭 무슨 이름이 필요하다면 ‘까치네 집’이라든가 ‘심청이네 집’이라든가 ‘망이네 집’ 같은 걸로 하면 되겠지. 함께 모여 세상살이 얘기도 하고, 성경책 얘기도 하고, 가끔씩은 가까운 절간의 스님을 모셔다가 부처님 말씀도 듣고, 점쟁이 할머니도 모셔 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마을 서당 훈장님 같은 분께 공자님 맹자님 말씀도 듣고, 단옷날이나 풋굿 같은 날엔 돼지도 잡고 막걸리도 담그고 해서 함께 춤추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 굶은 일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그런 교회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고 그러면서 권정생은 “어쨌든 교회는 70년대에 들면서 갑자기 권위주의, 물질만능주의, 거기다 신비주의까지 빌려와서 인간상실의 역할을 단단히 하였다. 조용히 가슴으로 하던 기도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어야 했고, 장로와 집사도 직분이 아니라 명예가 되고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었다. 같은 목사님인데도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도시교회 목사님과 농촌교회 목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차이까지도 생겼다. 인간 차별은 평신도까지도 서먹서먹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상대가 멀어졌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하여 출세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부가 되었다.”라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기독교를 향해 쓴소리를 던진다. 권정생, 『하느님의 눈물』, 앞의 책, 24면.

133) 권정생,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산하, 2000.

134) 이오덕, 「강아지가 보는 사람 사회」, 『어린이책 이야기』, 소년 한길, 2002, 189면.

하는 것처럼, 그다지 난해하지도 않고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다. 생태주의의 원래적 의미처럼 생겨난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존과 상생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위기는 결국 남의 것, 자연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빼앗아오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스스로 각성하고 성찰할 때 인간은 생태계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생태주의 세계관이 작품 곳곳에 그의 삶처럼 유기적으로 배어있다. 그의 동화를 공존과 상생의 문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다만, 권정생 동화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소외된 것과 소외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계 모색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소외된 것뿐 아니라 소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정이나 소외된 자들끼리의 상생을 넘어서 소외된 자와 소외되지 않은 자간의 상생이야말로 정작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강아지똥』에서 강아지똥이 민들레와의 상생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의 작품에서 소외된 자들끼리의 상생으로 소외를 극복하면서도 극복되지 못하는 체념적 현실을 방치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독자로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다 같이 힘들고 못살던 지난 세기에서 어느덧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서 생존을 요구받고 있지 아니한가? 음지와 양지의 상생이 필요한 때이다.

2. 분단 극복과 인간성 회복의 문학

권정생의 동화가 이전 동화들과 구분되는 점으로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인간애, 투철한 역사의식, 풍요로운 서정 그리고 사실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아동문학의 외연을 분단극복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그의 동화는 현실도피 문학이 아니며 순수지향 문학은 더욱 아니다. 그는 작품 속에서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민족 분단 극복을 위한 의지와 함께 인간성회복을 내보인다. 아동문학 역시 단순한 작품 주제 이상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근원적인 진리와 진실을 독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민족의 동질성 찾기가 분단 극복문학의 첫걸음이라고 할 때 권정생의 「바닷가 아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바닷가 아이들」¹³⁵⁾은 강대국 이데올로기에 갇혀 사는 남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만나고 이해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같은 민족을 적으로 간

135) 권정생, 「바닷가 아이들」, 『바닷가 아이들』, 창비, 2005.

주해 미워해 왔던 우리의 멀지 않은 과거인 ‘반공시대’를 새로이 재조명하고 있다. 남쪽 바닷가의 동수는 태식이 북에서 왔으니까 간첩으로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집을 다섯 채 받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둘은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훌쩍 벗어 오줌도 누고 똥도 누면서 둘 다 똑같은 구린내를 풍기며 모두 똑 같은 사람임을 알아간다.

둘은 발가벗은 몸을 한 채, 마주 보고 다시 한 번 웃었습니다.

“너희네 집에선 무얼 먹니?”

“밥하고 김치하고, 떡도 먹어.”

태진이가 얼른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하고 같구나.”

“너희도 그런 것 다 먹니?”

“그럼.”

“고추장도?”

“그래.”

“새우젓도 멸치젓도 먹니?”(100면)

둘은 통일이 되면 만나자고 약속한다. 태식은 동수가 준비한 보리밥과 마늘장아찌와 미숫가루와 샘터 물을 가득 담은 물통을 받고 북쪽으로 간다.

공존과 상생은 남에게 나처럼 하라거나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남북의 두 어린이 입을 통해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같은 사람임에도 단지 북에 살고 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또 그렇게 교육되는 현실에 대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님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남을 인정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동수와 태식은 언제 다시 만나게 될까? 작가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통해 상생의 길을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분단극복의 문제를 어렵고 거추장스러운 포장이나 함정을 벗겨낸 쉬운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

이 밖에 분단 극복과 인간성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는 『점득이네』, 『몽실언니』, 『초가집이 있는 마을』, 『토끼나라』,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 『무명저고리와 엄마』등을 들 수 있다.

권정생은 동화를 통해 민족의 삶에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가이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현실참여가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 궁핍 속에 허덕이는 농촌 현실, 자연파괴 현장 등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바른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무지개 위에서 그려졌던 아동문학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위에 내려놓았다는 데서 권정생 동화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술하게 될 동심천사주의 극복과도 무관하지 않다.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영웅주의와 셉티멘탈리즘 또는 서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그리는 것이 동화의 정석적 틀이었던 이전의 동화에서는 현실과 분리된 아이들이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동화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관념이 고정화되기에 이르렀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아동문학도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연히 영웅이 등장하고 누군가 고귀한 희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아군이 승리하고 그래서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흐름이었다.

권정생 역시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전쟁에 상처받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전쟁이 끝난 자리도 전쟁과 마찬가지로 비참하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또다시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전쟁을 민족 전체의 슬픔으로 바라본다. 현실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현실지향의 태도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의 이야기는 주로 식민지 시대와 해방 그리고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현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권정생에게 있어서 동화 쓰는 일은 동화 쓰는 그 자체만이 아닌,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과정이고 또한 그 결과물인 것이다.

권정생의 많은 작품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 상황 등 우리 민족 비극의 역사를 작품 배경으로 삼고 있다. 김용희¹³⁶⁾는 분단상황에 따른 아동문학을 거기에 대응하는 문학적 태도나 관점에 따라 두 가지 경향으로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분단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가는 작품군이며, 다른 하나는 분단 상황 속에서 모순과의 화해를 모색해 가는 작품군이다. 전자에는 모순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낭만적 이상주의로 극복해 나가는 능동적 아동상이 제시되고, 후자에는 어쩔 수 없이 휘몰리게 된 현실에서 꾀꾀하게 살아가는 수동적 아동상이 제시된다. 권정생의 작품은 후자에 속하는데, 우리의 불행했던 민족사를 어린 주인공들의 험난한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대변하고 있다. 나아가서 권정생 동화는 가장 짧은 시간에 끔찍하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성마저 상실케 하는 전쟁의 비극적 역사성을 보여주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권정생 동화가 이전의 동화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점으로 인간애, 투철한 역사의식, 풍요로운 서정 그리고 사실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아동문학을 분단극복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분단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분단과 전쟁의 참혹성으로부터 도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단 극복을 위한 의연한 의지를 내

136) 김용희, 「분단 현실의 문학적 인식과 분단 극복」, 『동심의 숲에서 길 찾기』, 청동거울, 1999, 169면.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간성 회복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데서는 곳곳한 작가정신마저 엿볼 수 있다. 문학이 시대 정신의 산물이라는 명제 앞에서 아동문학 역시 현실에 등 돌린 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 아동문학이 추구해야 할 근원적인 진리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에서 권정생의 생태주의 문학을 현실에 바탕을 둔 분단극복 문학으로 평가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3. 동심천사주의를 넘어선 문학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맑고 곱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어린이를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순수함 그 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동심천사주의’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고, 동화란 아름다운 것만을 그리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만연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이나 안타까움을 외면한 채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내용으로만 포장되어 기형적으로 성장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끝나는 현실을 벗어난 행복한 결말은 유보된 불행이거나 불행으로부터의 도피일 뿐 결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아동문학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사실 어린이 문학은 주체인 어린이를 보는 관점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어린이 문학은 스스로의 본질을 동심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심을 보는 관점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아직도 거듭하고 있습니다.¹³⁷⁾

권정생 동화가 이전 동화들과 구별되는, 또 하나 평가받아야 할 부분은 생태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동안 아동문학의 주류를 이루어오던 동심천사주의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곧 동화의 외연을 확장시켰음을 의미한다.

문학은 직간접적으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전의 한국 아동문학은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센티멘탈리즘이나 영웅주의, 서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그리는 것이 동화의 틀처럼 정석화되었고, 동화에서 현실과 분리된 아이들이 동화의 주인공이 되는 동심천사주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송완순은 「조선아동문학시론」에서 “방씨 등의 아동관 및 아동문학관이 아동의 단순성을 그야말로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함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아동은 미추와 선악에 있어서 현실생활에 별로 물들지 않은 순결무구하고 천진난만하고 무사기한 인간으로서 천사이므로 그렇게 순무결한 동심을 탁란시키는 일체의 현실로부터는 될 수 있는 데까

137) 김상욱, 「어린이문학과 현실주의(3)」, 『어린이문학』, 10월호, 2000, 33면.

지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근본사상이었다. 이 사상은 성인으로서 그들의 당시 식민지적 불우(不遇)에 대한 소극적 센터멘탈리즘 때문에 더욱 조장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에 젖은 꽃방석에 아동들을 태워서 무지개의 나라로 승화시키기에 힘썼다. 성인사회의 불행한 현실을 아동에게 건문시킬 수는 차마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최악이라고까지 생각하였던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¹³⁸⁾

동심천사주의로 대변되는 기존의 동화가 아동문학의 태동과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과 악, 이상과 현실, 어린이와 어른의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이야기로 발전할 수 없었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어른들로부터 외면되어 문학의 그늘에 비껴져 왔던 것이다. 권정생은 어린이 전유물로서의 동심천사주의 동화를 극복하고 어른들이 읽는 문학으로 외연을 확장한 작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자 했던 그의 생태주의적 문학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포장된 동심이나 꾸며진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린이가 단순히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독자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인류의 일부인 것처럼, 아동문학도 문학의 일부여야 한다. 어린이에게 좋은 책은 그 책 자체로도 좋은 책이어야만 한다.”¹³⁹⁾는 지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문학의 지향할 바를 암시하고 있다.

현실을 벗어난 삶과 문학이란 우리에게 아무런 각성도 되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가상의 현실을 현실처럼 그려내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것도 우리 현실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도 우리 현실이다. 아동문학에서 어린이들의 삶을 분리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함을 알고 이해해서 함께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아동문학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문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신이다. 놀리고, 비뚤어지고,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측은의 마음이 곧 문학의 마음이다. 또한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아름다움에 대한 생명과 외경의 마음이 곧 문학의 마음이다. ¹⁴⁰⁾

그에게 있어서 문학은 결국 어두운 곳에 숨죽이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고 애정이었다. 자연의 순리가 깨어지고 사랑이 개인의 이기심으로 자리바꿈할 때 모든 것의 존

138) 이재복, 「밥대신 꽃을 선택한 낭문주의자」, 『우리동화 바로 읽기』, 한길사, 1996, 32면, 참조.

139) 존 로 타운젠드, 강무홍 옮김, 『어린이책의 역사 1』, 시공주니어, 1996, 9면.

140)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22면.

립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인간이 설 곳 또한 없다. 권정생이 남긴 유언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통 받는 존재들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내 책을 팔아서 생기는 돈은 어린이들이 책을 사서 봤기 때문에 생긴 돈이다. 그러니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 책을 팔아서 생기는 돈은 북녘 땅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면 좋겠다. 이라크와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은 어떡하면 좋을까? 나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굶는 아이들이 많고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안 태어날 수도 있다.¹⁴¹⁾

권정생의 문학은 처절하다.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는 모든 것들이 포장되지 않고 그대로 작품에 나타난다. 하지만 빼뚫어진 것, 소외당하는 것, 착취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지만은 않다. 고뇌하다 자각하고 새롭게 태어나, 온전한 것들을 오히려 측은히 생각하며 그것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깜둥바가지 아줌마」¹⁴²⁾는 부뚜막 그을음에 찌들어 까맣게 된 바가지 이야기이다. 아예 상 위에 오를 자격조차 되지 못해 부엌 바닥에 새끼 꼬나풀로 아무렇게나 만든 또아리에 깜둥바가지는 주저앉는다. 그런 깜둥바가지를 오목탕끼나 조그만 사기접시는 용용 놀러댄다. 된장떡배기가 사기접시를 혼내지 않는다고 깜둥바가지를 나무라지만 깜둥바가지는 그런 사기접시가 조금도 밋지 않다. 그런데 깜둥바가지가 개울가에 갔다가 얼굴에 끔찍한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 그러자 사기접시는 제보아줌마라고 놀린다. 그래도 깜둥바가지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개울에서 보고 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 그리고 말야, 파란 하늘에는 빨간 해님이 떠 있단다. 해님의 옷자락은 무척 부드럽고 길단다. 그래서 따뜻하게 일상 어느 곳이든 해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단다. 해님이 병글병글 웃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화안하고 또 즐거운 거야.”(39면)

깜둥바가지 아줌마는 어쩌면 자기도 해님처럼 인자한 얼굴을 가져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여기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해님이라고 길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모든 것에 사랑을 담아 바라보는 깜둥바가지야말로 진정 세상을 환하게 하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기접시는 깜둥바가지 아줌마의 말을 듣지 않고 상위에서 까불다가 밥상 위에서 동맹이쳐져 몸뚱이가 조각조각 바스러지고 만다. 깨진 사기접시를 버리려다 나미네 엄마는 낱아 찢어진 깜둥바가지도 거추장스럽게 생각되어 개울에 갖다 버린다. 부엌에 있

141) 장주식, 「강아지똥 할아버지」, 『어린이와 문학』, 2007, 73면.

142) 권정생, 「깜둥바가지 아줌마」,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2005.

는 모든 것들이 슬퍼하자 감동바가지 아줌마가 조용히 말한다.

“너무 슬퍼들 마세요. 그 동안 여러분들과 이 부엌 안에 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에야 돌이켜보니, 제가 못생겼어도 쓸모 있는 바가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군요. 저도 정든 이 부엌을 떠나는 것이 가슴이 에이듯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다 찢어진 제 몸뚱이는 부엌 안에서 이제 쓸모없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한 번은 헤어져야 할 우리들인 걸요. 부디 몸조심 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사이 좋게 지내 주세요”(44면)

개울가에 내동댕이쳐진 감동바가지 아줌마는 차가운 개울물 속에서 사기접시의 귀여운 눈동자를 생각한다. 지금쯤 사기접시는 한 개의 별이 되어 넓은 하늘 위에 살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별을 찾아 개울가에 몸을 맡긴다. 부엌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려졌지만, 다시 별을 찾아 나서는 감동바가지 아줌마는 이미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다.

『강아지똥』, 『돌배가 보고 온 달나라』, 『떡구렁이 기차』 등도 기존의 동화와 완전히 다른 소재와 주제로 눈여겨 볼만한 작품들이다.

이재복은 권정생의 동화는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인 시공창과 같은 어두운 현장에 갇혀있는 버려진 존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권정생의 동화는 철저히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운명적으로 현실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영혼들이 그들의 해체된 생명들을 다시 피워 부활하는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¹⁴³⁾고 말한다.

내가 쓰는 동화는 차라리 그냥 이야기라고 했으면 싶다. 서러운 사람에겐 남이 들려주는 서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 위안이 되고 그것이 조그만 희망으로까지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동화를 쓰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언제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누구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들려주고 싶듯이 그렇게 동화를 썼는지도 모른다.¹⁴⁴⁾

이런 삶 속의 사유가 걸러지면서 그대로 그의 문학이 되었다. 그의 문학에는 강한 구호도 없고 기교도 없다. 그가 앞에서 말했듯이 따뜻한 담 모퉁이에 둘러앉아 지나온 과거와 보아온 이야기를 하듯 써내려간 것이 그의 문학이다. 주인공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좀처럼 모방할 수 없고 흉내 낼 수 없

143) 이재복, 「시공창에도 귀한 영혼이 숨쉬는 삶의 한 귀퉁이」,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우리교육, 1996, 277면, 278면.

144) 이철지 엮음, 『권정생 이야기 1』, 한결음, 2002, 23면.

는 그만의 문학세계이다. 그의 사상이나 작품 내용이 결코 대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성공한 것은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함 때문이다.

결국 극심한 가난과 전쟁의 고통,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생겨난 소외되고 버림받는 존재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며 느끼게 된 사랑이 권정생의 동화를 지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과 그 존재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함께 어우르는 삶, 그것이 곧 권정생이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거니와 그의 작품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기저인 것이다.

흔히 동화에다 무리한 설교조의 교훈을 담곤 하는데, 과연 그런 동화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유익할지에 대해 권정생은 강한 회의를 표시하면서 기존의 동심천사주의의 틀을 벗고자 했던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음은 혼시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존하고 상생하는 자연 속의 인간일 때 가능하다는 그의 문학관은 이전의 한국 아동문학이 벗어나지 못하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동화의 독자층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컨대 권정생 동화가 한국 아동문학에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의미는, 첫째 더 이상 어린이가 어른의 축소판 혹은 성장단계를 마치지 않은 인격체로서 동화의 주인공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 둘째 독자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진 존재로서 포장되지 않은 동심을 현실 있는 그대로 그려냄으로써 동심천사주의로 대표되던 아동문학의 전근대성을 극복하였다는 점, 셋째 성인문학의 아류가 아니라 어른들까지 읽게 되는 ‘어린이에게 좋은 동화는 그 자체로서 좋은 문학’이 되도록 아동문학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권정생 동화를 생태주의 관점에서 분석, 고찰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화의 위상과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물질만능 시대, 생태계 파괴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이 연구의 성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권정생의 생애와 생태주의 세계관에서는 권정생 삶을 고찰해봄으로써 식민지 시대, 두 번의 전쟁과 분단의 고통이 어떻게 그의 작품에 구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권정생에게 있어 동화는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곧 자신의 이야기이다. 그는 가난과 병마 속에서 한없이 낮은 곳으로 자리하면서 작품 주인공들이 그러하듯이 끊임없는 각성과 성찰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치유의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자연을 어머니라 할 때 권정생은 모성성에서 그 치유의 길을 찾고 있다.

본격적인 작품 논의의 장에서 첫째, 과학만능주의와 전쟁에 대한 비판에서는 과학만능주의 폐해, 전쟁의 폭력성과 고통으로 나누어 권정생의 생태주의적 문학관을 고찰하였다. 권정생은 인간의 삶을 생태계 중심이 아닌 생태계의 하나의 고리로 보며 전쟁과 편리함만이 전제된 과학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권정생은 작품 속에 우리의 근대사를 고스란히 담아냈으며, 우리 농촌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되 목가적 농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상처받고,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그려나가고 있다. 전쟁은 남의 것을 빠른 시간에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그 아픔은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그 고통이 이어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는 전쟁의 폭력성과 고통을 고스란히 작품에 그려 넣음으로써 전쟁이란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자연과 소외된 존재에 대한 재인식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관계, 소외된 존재에 대한 애정으로 나누어 권정생이 자연을 대하는 자세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생태주의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권정생의 작품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똥, 깜둥바가지, 장대, 아기 소나무 그리고 사람, 모든 존재들이 함께 할 때 세상은 비로소 살 만하다는 것을 말한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발전만을 지향하는 세태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의 순수함,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작품 속에 그려낸다. 작가가 그려내는 이야기에는 인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존재를 향한 애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셋째, 자기희생을 통한 생명의식 구현에서는 자기희생과 모성성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권정생 동화가 추구하는 생명존중과 생명평등을 고찰하였다.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존재함으로써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 권정생 동화가 추구하는 문학사상이다. 결국 생명은 모든 관계 속에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으며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며 모든 생명을 소중하다는 것이다. 권정생 등장 이전의 동화에서는 인간을 위해 동물이나 식물이 죽음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기조가 깔려있는 이야기 전개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권정생은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는 소중한 존재로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처럼 권정생 동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생과 공존이며, 이는 인간 스스로 각성과 성찰을 통해 구현해 나가야 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권정생 동화가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자리매김하게 될 위상과 의미는, 그가 공존과 상생의 문학, 분단 극복과 인간성 회복의 문학을 추구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독자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진 존재로서 포장되지 않은 동심을 현실 있는 그대로 그려냄으로써 동심천사주의로 대표되던 아동문학의 전근대성을 극복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성인문학의 아류가 아니라 어른들까지 읽게 되는 ‘어린이에게 좋은 동화는 그 자체로서 좋은 문학’이 되도록 아동문학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점 등에서 한국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권정생 동화에서의 생태주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 글은 생태주의의 측면에서 권정생의 생애와 문학세계에 대해 조망해 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상과 배경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노장사상, 화엄사상과의 관련성 검토나,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마해송이나 이원수 등과의 비교 연구도 과제로 남는다. 성인문학과는 달리 아동문학에서는 생태주의 작품뿐 아니라 비평 역시 양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생태주의는 생태계내의 모든 존재들의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는 가장 문학적인 소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연성은 성인문학보다 아동문학에서 더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로 아동생태문학에 대해 더욱 활발히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연구의 의의를 여기서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정생, 『뽕배가 보고온 달나라』, 창작과 비평사, 1977
_____, 『몽실언니』, 창작과 비평사, 1984
_____, 『달맞이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 햇빛출판, 1985
_____, 『바닷가 아이들』, 창작과 비평사, 1988
_____, 『점득이네』, 창작과 비평사, 1990
_____,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출판, 1991
_____,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1996
_____, 『오소리네집 꽃밭』, 길벗어린이, 1997
_____, 『깜등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1998
_____, 『사과나무밭 달님』, 창작과 비평사, 1998
_____, 『하느님의 눈물』, 산하, 1998
_____, 『떡구렁이 기차』, 우리교육, 1999
_____, 『또야 너구리가 기운바지를 입었어요』, 웅진주니어, 2000
_____, 『비나리 달이네집』, 낮은산, 2001
_____, 『황소아저씨』, 길벗어린이, 2001
_____, 『곰이와 오피돌이 아저씨』, 보리, 2007
_____, 『랑랑별 때때롱』, 보리, 2008
_____, 『아기소나무』, 산하, 2010

2. 단행본

-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96.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1996.
김경호, 『생명의 저울』, 푸른나무, 2006.
김동윤, 『우리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 리토피아, 2004.
김상욱,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 비평사, 2002.
_____,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7.

- 김서정, 『어린이문학 만세』, 푸른책들, 2003.
- 김용민, 『생태문학』, 책세상, 2003.
- 김용희, 『동심의 숲에서 길찾기』, 청동거울, 1999.
-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 김자연, 『한국동화문학연구』, 서문당, 2000.
- 김제곤, 『아동문학의 현실과 꿈』, 창비, 2003.
-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2002.
- _____, 『비관적 상상력을 위하여』, 녹색평론사, 2008.
- 류승국,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1996.
-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숲, 1999.
- 문현병 외, 『상생의 철학』, 동녘, 2001.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선안나, 『천의 얼굴을 가진 아동문학』, 청동거울, 2007.
- 신덕룡,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2000.
- 원종찬, 『아동문학의 이해와 감상』, 겨레아동문학회, 1995.
- _____,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비, 2001.
- _____, 『동화와 어린이』, 창비, 2004.
- _____,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08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 이오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 _____, 『삶, 문학, 교육』, 종로서적, 1986.
- _____, 『어린이책 이야기』, 한길사, 2002.
- _____, 『시정신 유희정신』, 굴렁쇠, 2005.
-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소년한길, 1984.
- 이원준, 『권정생』, 작은씨앗, 2008.
- 이정석, 『생태주의 아동문학과 해학의 동심』, 아동문학평론, 2009.
- 이재복, 『판타지 동화 세계』, 사계절, 2001.
- _____,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소년한길, 2004.
- _____, 『우리 동화 이야기』, 우리교육, 2004.
- 이철지 엮음, 『권정생 이야기 1』, 한결음, 2002.
- _____, 『권정생 이야기 2』, 한결음, 2002.
- 최윤정,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 문학과 지성사, 1997.
- _____, 『슬픈 거인』, 문학과 지성사, 2000.

최지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우에노 료, 햇살과나무꾼 역, 『현대 어린이 문학』, 사계절 출판사, 2003.

Chris Van Allsburg, 손영미 옮김, 『이건 꿈일 뿐이야』, 베틀북, 2006.

John Rowe Townsend, 강무홍 옮김, 『어린이책의 역사 1』, 시공주니어, 1999.
 _____, 『어린이책의 역사 2』, 시공주니어, 1999.

Lillian H Smith, 김요섭 역, 『아동문학론』, 교학연구사, 1997.

Maria Nikolajeva, 김서정 옮김, 『용의 아이들』, 문학과 지성사, 1998.

Pall Hazard, 햇살과 나무꾼 옮김, 『책 어린이 어른』, 시공주니어, 1999.

Perry Nodelman, 김서정 옮김,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1』, 시공주니어, 2001.
 _____,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2』, 시공주니어, 2001.

Rachel Louise Carson, 이태희 옮김, 『침묵의 봄』, 참나무, 1991.

3. 논문 · 평론 · 기타

김상립, 「권정생 『한티재 하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성혜, 「권정생 동화 연구 -판타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지연, 「한국 현대 생태주의 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희경, 「김유정문학의 생태주의적 고찰」,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노연경, 「권정생 소년소설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류명옥, 「권정생 문학에서 경험과 형상화 관계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금숙, 「권정생 초기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미옥, 「권정생 동화의 리얼리즘 구현양상과 문학교육적 의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수경,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배주현, 「이문구 소설 연구 -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백영현, 「권정생 동화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성갑영, 「권정생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손민달, 「한국 생태주의 문학 담론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계삼, 「권정생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수연, 「권정생 소설 『한티재 하늘』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은실, 「한국 현대 생태소설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주현, 「권정생의 리얼리즘 동화의 판타지 동화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경혜, 「권정생 단편동화의 문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설아, 「권정생 문학 연구 - 중·단편동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경아, 「권정생 동화의 페미니즘적 읽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남미, 「권정생의 판타지 동화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희구,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황경숙, 「권정생 동화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허난희, 「권정생 아동문학의 모성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 위기철, 「어른문학에도 보기 드문 걸작 몽실언니」, 『창작과 비평』 부정기간행물 1호, 1985.
- 최지훈, 「겨레의 한」,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1986, 여름호.
- 권정생, 「함께 살아갈 어린이 문학」, 『어린이문학』, 2002년 2월호.
- 이계삼, 「진리에 가까운 정신」, 『동화읽는 어른』, 2002년 5월호.
- 오세란,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관」, 『동화읽는 어른』, 2005년 9월호.
- 김현숙, 「또야는 친구들을 기다린다. - 권정생 유년동화론」, 『창비 어린이』, 창비, 2005, 겨울호.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View Of Ecologism In Kwon Jung-saeng's Fairy Tales

Oh Gyoung-im

This research paper is intended to take a ecological view of Kwon Jung-saeng's fairy tales. In an age of materialism and ecocide, we all need to ask ourselves questions about the values which we have in our sights and we shall be pursuing. Hence that'll be the product of this work.

Chapter II, the life and the world view of ecologism of Kwon Jung-saeng states how the life in colonial times and wartime and the pain from the division are pulled off through his works.

In the first phase of chapter III, the criticism of scientism and war, the world view of ecologism of Kwon Jung-saeng is further analyzed, divided into two subparagraphs - the harmful consequences of scientism and the violence and suffering of war. Kwon Jung-saeng didn't consider the human life as the center but the link of ecosystem and looked upon war and convenience of technology as current challenges. The majority of his pieces were set in farm village describing modern history of ourselves vividly in his works, portraying the characters living lives of poverty, marginality and tragedy.

The second phase of chapter III, new understanding of nature and marginalated beings, states his ecological standingpoint at an existence, divided into two subparagraphs - the organistic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 and the affection for marginalated being. His works are characterized by bringing to life everything that is real - a dog dung, a black bowl, a pole, a small pine tree and a human being, etc, thereby being together with everything make it worth it.

In the third phase of chapter III, incarnation of life-first ethics by self-sacrifice, looking over self-sacrifice and motherhood we discussed a respect for life and an equality of lives which Kwon Jung-saeng's literature are ultimately persuing. 'Everything is alive and so dear in being.' is the motto of Kwon's literature. In the last analysis, all living things are precious and equal because they're all tangled together like a net.

The status and signification of his fairy tales in Korean children's literature will be summed up as follows. At first he portrayed the literature of co-existence and win-win, secondly overcomed the lag of the children's

literature represented the so-called 'theory of children's innocence as angels' by describing innocence of individual childhood as unwrapped and thirdly extended the scope of the children's literature for adults. Indeed, he is definitely worthy of notice as the central figure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Ecologism could be presenting the literary materials for writing through understanding all beings in ecosystem, furthermore it is highly probable in children's literature rather than in adults'. We hope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discuss the children's eco-literature actively and that'll be the fruition of our studies.